

# 리아호나

단정함의 문화를  
조성함, 14쪽  
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가?  
6쪽





자녀들이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맞서도록 우리가 매일 도울 때, 우리는 또한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발전”시키도록 돕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 준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활에서 좀더 풍성하게 영을 느끼도록 돕게 될 것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14쪽 참조.

# 리아호나



**표지**

앞: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뒤: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14쪽 참조



**친구들 표지**

"난 하나님의 자녀", 4쪽 참조



6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가정의 밤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
- 14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젠 핀보로우*
- 20 정도를 지나쳐 *퀸틴 엘 쿡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킴
- 32 청년회에서 상호부조회로 *캐서린 루백 피터슨*
- 38 예수님의 말씀: 겸손 *애토스 엠 애모림 장로*
- 42 말일성도의 소리  
오늘의 기적 *니토츠카 실바 칼리스토*  
온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 *파멜라 스테오펜호에크*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제이슨 라카요*  
새로운 선교 생활 *로버트 에이 헤이그*
- 48 2003년 리아호나 3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6 순결해야 할 이유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13 아이디어 목록: 참된 친구가 됨 *크리스티 맥레인*
- 19 참된 아름다움 *로잘린 콜링스*
- 26 복음 고전: 오늘 저는 ...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 30 내 가족에 관한 진실 *스코트 빈*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비키 에프 마쭈모리*
- 6 에밀리 할머니의 닭 *사라 루이스*
- 9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패트 그레이엄*
- 10 신약전서 이야기: 갯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 14 친구가 친구에게: 기억하라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16 성전 카드



14쪽 참조





그림: 해리 앤더슨, *내 아버지의 일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누가복음 2:46~47)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제공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제3호  
23983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인드  
**고문:** 제이 켄트 즐리, 더블류 톰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너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리처드 엠 톰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플슨, 돈 엘 설  
**편집 스태프:** 콜러트 네베거 오운, 수잔 보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멜린 민슨, 셸리 제이 오데커트, 애덤 시 울슨, 유디스 엠 팔러, 조나단 에이치 스티븐슨,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인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텔, 김벌리 엘,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보트,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새리 쿡, 캐리 린 시 해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버슨, 브래드 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루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할러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관: 제 444호, 제 40권, 제 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장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번호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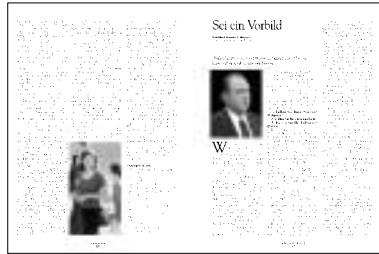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로카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일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rch 2003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애독자 편지**



**“그대 모범이 되라.”**

리아호나(독일어판)를 항상 즐겁게 읽습니다. 2002년 1월호에 실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의 말씀 “그대 모범이 되라”가 제게 특별히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배드 드리버그에 살았을 때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던 저는 종종 마을 헬스 클럽에 생수를 배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한 여성이 자신의 생활은 온갖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 보라고 그 여성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최근에 말일성도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처럼 친절하고, 개방적이고, 예의 바르고, 빛나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몬슨 부대관장님께서 주신 권고에 따르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여러분의 마음(머리)을 진리로 채우십시오;

“2.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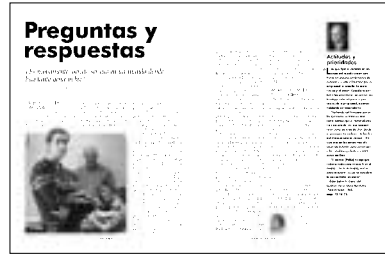
“3. 여러분의 삶을 봉사로 채우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15쪽).

알베르트 짐머,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

카이저스라우테른 지부



**가족을 강화시키는 리아호나**

리아호나(스페인어판)가 도착할 때마다 아내와 저는 일 주일 이내에 다 읽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음으로써 우리 가족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 가운데 하나는 대관장단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회원들과 친구들간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질의 응답에 의견을 실은 다른 독자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의견을 제 생활에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리아호나는 우리가 정에서 하나의 축복입니다.

후안 알베르토 아르케세,  
실버 스프링 매리랜드 스테이크,  
실버 스프링(스페인어 사용) 와드

**흑백판 리아호나: 대회 특집호**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구독해 왔습니다. 10살 된 제 딸은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 아이는 천연색으로 된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아호나는 흑백으로 출판된 것들로, 바로 연차 대회 특집호입니다. 제 딸은 특집호가 도착하면 조금 실망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기에 교회 총관리 역원들이 나온단다. 그 분들의 말씀은 참으로 영감을 주는 말씀이란다.”

저는 또한 교회 소식을 즐겨 보는데, 그 곳에서 교회 발전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잡지는 제 인생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리비아 코로모토 메타 몬틸라,  
베네수엘라 팔콘 지방부,  
코로 제2지부





1

2

30



1:00

8



9



15



16

# 가정의 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한 주에 하루 저녁-월요일 밤

“전교회에 걸쳐 우리는 한 주에 한번씩[월요일 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합니다. 가족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가족 활동 및 그와 유사한 행사를 계획합니다. 전세계의 모든 가족이 그 한 가지 일만 실천해도 세상의 가족들을 단합시키는 일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회전, *Boston Globe*, 2000년 8월 14일)

“[주님의 우리가 한 주에 하루 저녁 자녀들을 함께 불러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가정의 밤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사야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혼을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4:13]라는 축복도 따릅니다.’(모임, 노우메아, 뉴칼레도니아, 2000년 6월 17일)

##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1915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정의 밤을 갖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의 부친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어머니의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거실을 따뜻하게 만들고는 대관장님이 명하신 대로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노는 동안 함께 온갖 것을 다할 수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은 부엌 난로에 놓인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로의 발표를 보고 웃고 재미있는 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과 몰몬경 이야기를 들려 주실 동안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부친은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

“우리 옛날 집의 거실에서 가졌던 그 간단한 모임으로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졌으며, 형제 자매간의 사랑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역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부모님이 교회 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들”,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4쪽)



**[이]** 교회  
의  
큰  
힘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가깝게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모임,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2002년 9월 11일)

원주: 모렐 시진 촬영; 매튜 라이어와 스티브 버디슨



## 대관장단 서한

1999년 10월 4일

수신: 전세계의 교회 회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월요일 밤은 교회 전체적으로 가정의 밤을 행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가족 유대 강화와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을 위해 남겨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금년 초에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 가까이 있게 해 주는 복음 원리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모님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과 복음 공부 및 교육, 그리고 건전한 가족 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월요일 저녁에는 리셉션을 개최하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피하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가능한 지역의 경우, 회원들은 지역 사회 및 학교 지도자들에게 월요일 저녁에 자녀나 부모가 그들의 가정을 떠나 여행해야 하는 활동을 계획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건물과 시설물을 닫아야 하고, 어떠한 와드 또는 스테이크 활동도 계획해서는 안 되며, 가정의 밤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

“여러분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어질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제쳐놓는 어떤 판단력을 인생에서 세워야만 합니다. 정의에 대한 감각, 곧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한 감각,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감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영적인 모임,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 2001년 12월 15일)

## 가족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가정의 밤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너무도 많은 지역에서 시들해지고 있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7년 전인 1915년에 시작되었으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일성도들에게 가족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비워 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가르치고, 경전을 읽고, 재능을 개발하고, 가족의 일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행사나 그와 비슷한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이러한 가족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는 일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가족의 문제를 염려하고, 자녀들에게 재능을 발표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교회 가족들 사이의 필요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계시 아래 시작된 것이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87년 전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그러한 필요는 분명 더 클 것입니다.

“가족 활동을 위해 월요일 저녁을 활용하지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교회 회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당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존중하여 그 날 저녁에는 일체의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저녁에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는 경향이





힝클리 대관장 내외는 자녀, 손자녀, 그리고 증손자녀들과 함께 갖는 가족 시간을 자주 즐긴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립학교 당국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월요일 저녁에 자녀들의 시간을 요하는 행사를 계획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쪽에 더 충실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없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협조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월요일 저녁을 가족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 기회와 과제를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저는 이런 저런 형태로 지역 사회에서 갖는 월요일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적잖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월요일을 가정의 밤 시간으로 비워 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러한 초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8쪽)

### 건전한 가족 생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생활에 있는 덕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메시지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가족에게 크나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르침과 행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 조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한 가족이 없이는 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하나의 단위 조직으로 일하는 강한 가족이 없이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전세계에서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 오로지 선하고, 건전한 가족 생활을 계발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교회의 장래에 관해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Ignacio Carrion와의 회견, 엘파소[멕시코], 1997년 11월 7일)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다.

1. 3쪽을 가린 상태에서 2쪽을 보여 주고, 식구들에게 이 메시지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월요일 저녁의 가정의 밤과 겹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을 만든다.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 몇 가지와 대관장단 서한을 함께 읽는다.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얻는 축복에 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2.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을 소리내어 읽는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읽을 때, 힝클리 대관장이 왜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식구들에게 똑같이 행하도록 권유한다.

# 순결

## 해야 할 이유들

순종의 축복은 아름답습니다. 불순종은 영적인 퇴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심이사도 정원희

**결** 혼 전의 순결 및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정절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표준들을 다소 다른 방법으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엄격하지만 가치있는 일곱 번째 계명의 일부로, 아마도 십계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평범한 주제라 할 수 없는, 일곱 번째 계명은 거의 주의하지 않는 계명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 칭송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세상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이 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는 “실리적”이 되는 데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도덕은 그렇게 “실리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전 순결, 결혼 후의 정절, 그리고 동성애를 피하는 것에 관해 계명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나아가 정신적인 불순결의 위험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마태복음 5:28 참조) 특정한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변경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영원은 현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에 심오함을 담고 있고 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교리들 중에서 몇몇 교리 안에는 가장 위대한 진리와 가장 소중한 원리가 들어 있다고 저는 오래 전부터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와 원리는 우연히 또는 가볍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을 가속화시킨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실제로 순종은 축복과 추가적인 지식 두 가지 모두를 가져다줍니다.(베드로후서 1:8 참조) 일곱 번째 계명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알마는 우리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알마서 38:12)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걱정이 실제로 참된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다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첫번째 및  
두 번째 계명 모두에  
들어 있는 중심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의  
참된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삶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유로 내세워  
불순결해지는 것은  
사랑의 실재를 그릇되게  
기념하기 위해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유 1: 하나님의 계명  
및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축복**

**이유 2: 우리의  
잠재적인 자아와  
일치하게 되는 축복**

- 세상의 미사여구에  
대항하십시오. 여러분이  
확고히 선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사람들이  
진흙 발로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 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진흙 발로  
여러분의 마음 속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은(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1839년에 주신 계시에서) “모든 사람에게 향한 사랑”을, 쉬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덕으로써 장식하는 것과 연결지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보다 나은 것을 위해 변화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과거의 것에 대한 욕심이 실제로 “말씀을 막기”(마가복음 4:19) 때문에 변화하는 데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막는 일은 육육이 영을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한 영적 특성 또는 영원한 특성에 대한 고려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언에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잠언 6:32)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 결과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나 매우 실재적이지만 보이지는 않는 몇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고린도후서 4:18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에 살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생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일 뿐입니다. 이 덧없고 불완전한 세상의 방식들에 너무 빠르게 융화된다면, 그러한 적응이 영원히 지속될 다음 세상에서 우리를 부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깨뜨린 사람이 “무지한 자”임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 훌륭한 이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일곱 번째 계명과 관련된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모두에는 불순결과 부정에 종종 따르는 질병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사항은 미혼모에게 발생하는 임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의 “마지막 해결책”은 낙태입니다. 야곱이 불순결과

관해 그토록 힘주어 적었듯이, 불순결과 마찬가지로 낙태는 많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깊은 상처를”(야곱서 2:35) 입힙니다. 두 번의 낙태를 행한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질문 형태로 보낸 글에 담긴 자신의 크나큰 고통의 심정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낙태한 태아들의 영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들이 아팠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두 번 다 임신 3개월째였으나, 엄마인 저는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전에 생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태아들이 길을 잃고 혼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태아들이 언젠가 육신을 갖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영들을 다시 제게로 데려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죄란 결코 행복한 것”(엘마서 41:10)이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는 세 번째 우려 사항은 성적 부도덕이 결혼 및 가족 생활에 역영향을 주고 이혼율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왕국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려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런 세 가지 우려 사항을 능가합니다.

**가장 훌륭한 이유**

순결에 관한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성적인 욕구로 가득 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항했을 때 분명히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창세기 39:9 참조)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심을 분명히 보였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의 가족, 보디발,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등 많은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또 다른 주요한 이유는 일곱 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서 성신을



쫓아 버린다는 점입니다. 성신은 죄 있는 영혼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의 동반하심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잃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유용함, 이해력, 활동,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이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 참된 사랑

성적 부도덕은 감각을 크게 둔화시키기 때문에 또한 위험합니다. 알맞게도 불순결은 감성을 느끼는 자신들의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세 경륜의 시대에 다른 세 분의 예언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에베소서 4:19; 니파이일서 17:45; 모로나이서 9:20 참조)

속죄는 사랑의 보다 낮은 형태가 아닌 순종과 자애를 통해 옵니다. 그것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이기적이고 중요한 행동인 반면에 부도덕은 이와는 반대로 이미 세상에 전염병처럼 만연하여 존재하는 이기심을 크게 증대시킵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모든 율법의 기반이 되는 첫번째 및 두 번째 계명 모두에 들어 있는 중심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참된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삶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유로 내세워 불순결해지는 것은 사랑의 실재를 그릇되게 기념하기 위해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맛을 느끼는 능력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내재하는 또다른 이유는 불순결이 자부심을 약화시킨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참된 신분에 역행하는 죄를 실제로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6:18, 19 참조) 제 견해로는 또한 전세에서 주어진 소중한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순결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가족 생활 방식의 주요 파열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열 상태가 우리 사회 환경에 미치는 참혹한 결과는 다가올 세대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 자유롭게 됨

이러한 우려와 다른 우려 사항들은 질병과 임신에 대한 세상의 우려보다도 훨씬 커다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고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디모데전서 3:15)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또한 여러 가지 자유 가운데서 한 가지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린도후서 3:17)라고 말했습니다.

**이유 3: 구체적이고 당연히 따르는 자부심의 축복**

**이유 4: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축복**

•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에 관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자유입니다.

• 실수를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기적은 진지하게 뉘우치고 필요한 단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 5: 영혼을 쪼먹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축복**

**이유 6: 단지 욕망에  
의해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 강해지게  
선택의지의 축복**

**• 잘못 행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  
충동이 아직 약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아직 강할 동안에 그  
충동에 맞서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연관된 여러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순결의 상실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라고 언급한 물문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저 반복되는 미사여구만은 아닌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모로나이 9:9 참조) 그리고 역사에서 그토록 여러 번, 경전의 기록자들이 그들 백성의 타락을 목격하면서 죄악으로 무르익는 것을 음행과 간음의 확산과 동등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힐라맨서 8:26 참조)

#### **자기 자신을 찾음**

어떤 욕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욕구들을 다스리며,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엘마서 39:9; 니파이삼서 12:30 참조) 우리가 그저 세상의 잃어버린 백성들과 같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될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마태복음 5:13 참조)

우리는 세상의 그릇된 풍습에 대항해야 합니다. 신앙개조 제13조는 우리는 인기 있고, 유행하며, 도덕적으로 추하고, 육감적인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3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덕 불감증을 수반하는 총체적인 성적 부도덕이 주는 또 다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흠쳐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게 될 때, 절망이 속히 들어옵니다. 한 예언자는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이서 10:22)라고 말했습니다.

#### **열 가지 경고**

저의 결론으로 드리는 권고는 다음의 10 가지 추가 사항에 잘 담겨 있습니다.

1. 세상의 미사여구에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확고히 선다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고린도후서 3:17)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그들이 영을 잃을 정도로 행동한다면 진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2. 여러분은 사람들이 진흙 발로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 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진흙 발로 여러분의 마음 속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순결과 가족에 대한 충실이라는 사슬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묶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조부모에게서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로, 그 다음에는 그 후손에게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묶이는 것은 물론 가장 강한 종류의 결합 속으로 함께 끌어당겨지는 것이며, 또 여러분 주위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계명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4.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기 보다는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상황은 좋은 사람들조차도 천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달아날 때 훌륭한 판단력과 튼튼한 다리,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5. 전통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이기적인 남성 외에도, 지금은 성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이기적인 여성도 있습니다.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가인이(아벨을 죽여 계명을 깨뜨린 후에) “나를 방해할 자는



없도다”(모세서 5:33)라고 말했다 때 지녔던  
공허한 자유와 갖은 종류의 자유입니다.

6. 실수를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기적은 진지하게 뉘우치고 필요한  
단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먼저 영혼이 커다란 뉘우침을 느껴야 하는데,  
이는 참된 병 고침은 참된 정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은 정말로 있습니다.

7. 잘못 행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  
충동이 아직 약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아직 강할 동안에 그 충동에 맞서  
행동하십시오. 그런 충동에 가버리 대처하는  
것은 의지는 약화되고 충동은 크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유혹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때까지 팽창한다는, 유혹에 관한 파킨슨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  
“힘써 [계속] 노력”(교리와 성약 58:27)  
하시기를 바랍니다.
8. 교회의 행동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부끄러운 일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예언자들께서  
주신 말씀과 연결지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끄러운 일은 경멸해야만  
하는데 이는 그것이 종국에는 별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성적인 정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복을 한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방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할  
뿐, 그들을 부러워 하지는 않습니다.
10. 저의 젊은 친구 여러분,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십시오!  
물문경에는 고대의 한 정치 지도자를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고 있는 생생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는 의를  
베풀었으나 저 스스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많은 음행을  
행하였음이라.”(이더서 10:11)

#### 결과와 축복

저는 부도덕에 따르는 결과 몇 가지, 즉 자제심  
대신에 치료약, 자녀 대신에 산아 제한, 결혼  
대신에 성적 상대자,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의  
출생, 새로운 전율로 그 모습을 가장한 오래된 성  
도착 등을 여러분께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격하지만 귀중한 일곱 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순종이 또한 그 출입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순결의 악행과 결과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출입증을 얻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르는 축복에  
다가서게 됩니다.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계명을 지킨다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신명기 28:2)라고

**이유 7: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택하는 의사  
결정을 실천할 때 항상  
오는, 의를 향한 개인적  
추진력이라는 축복**

**이유 8: 개인적  
온전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고결성이라는 축복**

• **세상의 부끄러운 일은  
경멸해야 합니다.  
성적인 정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복을  
한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 순결과 가족에 대한 충실이라는 사슬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묶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 다음의 축복들과 다른 것들이 “여러분께” 임하며 [여러분께] 이를” 것입니다.



1. 엄격한 일곱 번째 계명을 글자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및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2. 순종은 또한 자신의 잠재적 자아를 보게 해줌으로써 자신을 알도록 축복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도와 줍니다.
3.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이고 당연히 따르는 자부심의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4.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굴레 가운데서도 가장 억압적일 수도 있는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5. 또한 소모적인 합리화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 진정한 봉사 대신에 안으로 향하는 자기 연민 때문에 영혼을 좀먹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6. 우리는 또한 단지 선택의지의 중요한 부분인 욕망에 의해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 강해진 선택의지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니파이서 2:26 참조)
7.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택하는 의사 결정을 실천할 때 항상 오는, 의를 향한 개인적 추진력이라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그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에 굽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8. 이에 덧붙여, 개인적 온전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고결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 자신을 망가뜨린다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한 몸”(마태복음 19:5)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순결, 고결성, 그리고 마음의 안정,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저의 젊은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참된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소개시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서 2:17)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 교회와 예언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 왔으며, 그 말씀에는 순결과 정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도의 빛, 1981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를 고쳐 씀

# 참된 친구가 됨

## 크리스티 맥레인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이다.

✦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비록 여러분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며, 여러분이 질문하고 귀 기울여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말한다.**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 묻거나 칭찬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성의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 **장점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좋은 특성보다는 결점이 보다 쉽게 눈에 띄는 법이다.** 다른 사람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느껴지면, 그런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도록 노력한다.

✦ **진리를 옹호한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표준을 굽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도 그들의 표준을 굽히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봉사한다.**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 보여 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과 변화를 안겨 줍니다.”(“고귀한 동반자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2쪽)

✦ **항금률을 기억한다.** 말 그대로 간단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행하면 된다.(마태복음 7:12 참조)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을 유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잠언 17:17)는 말을 기억한다. ■  
크리스티 맥레인은 브리검 영 대학교 제2스태이크, BYU 제61와드의 회원이다.





# 선 하 고 아 름 다 운

세상의 표준에 맞서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개념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생애 동안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에 관한 확고한 토대를 심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젠 핀보로우

**몇** 몇 특별한 날에는 자녀들의 복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유아 축복을 받는 소중한 아기에게 정성들여 옷을 입힌다. 우리는 소중한 자녀가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얀 침례복을 준비한다. 그리고 일생에 기억될 만한 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아름다운 성전복을 입고 영원한 성약을 맺는 모습을 보는 특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특별한 날에 자녀들이 옷 입는 방법이 경건과 복음 의식의 성스러운 의미를 더하여 준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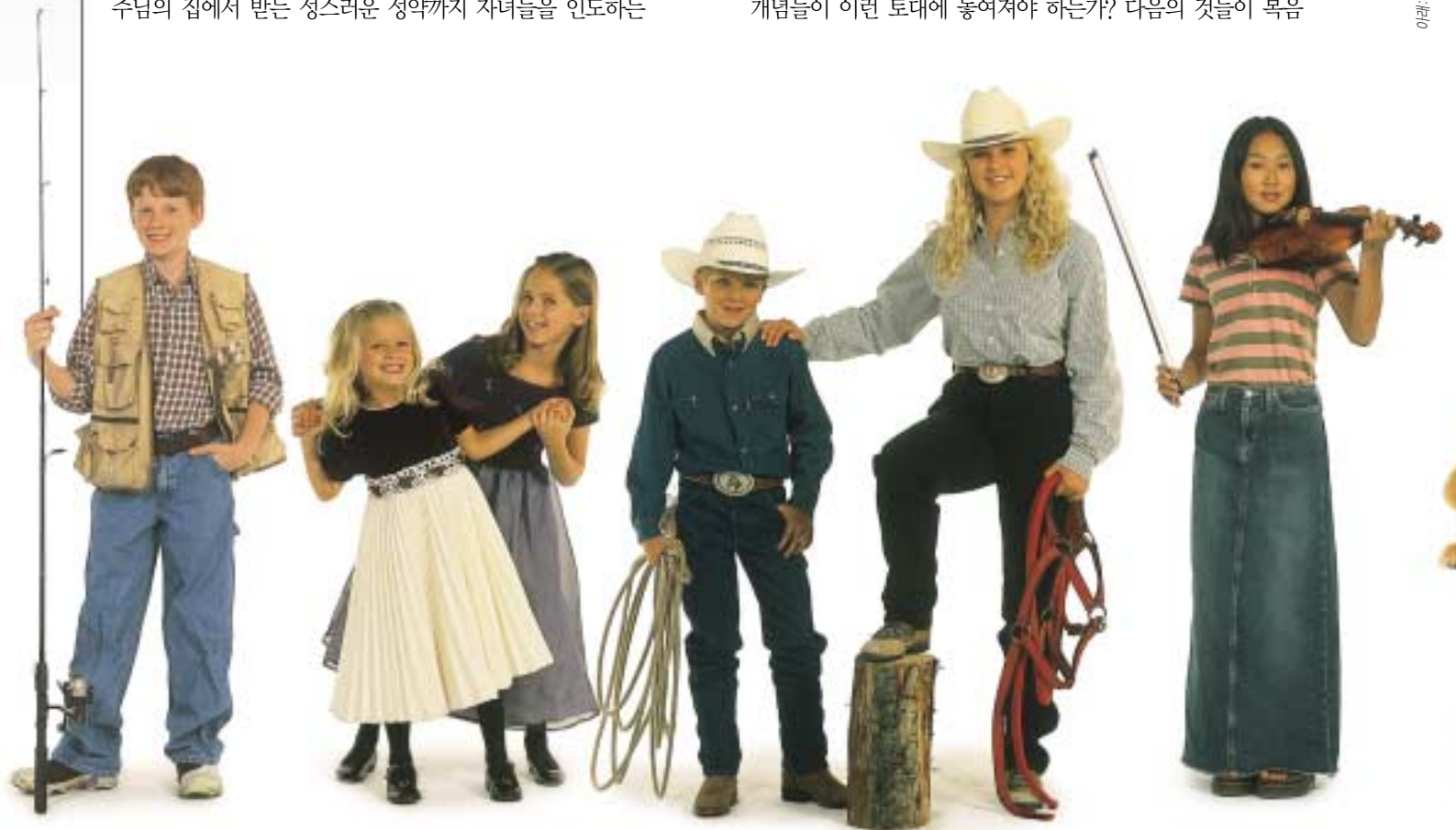
그러나 자녀들이 평상시에 옷을 입는 방법 또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참으로 자녀들의 일상적인 복장은 복음의 의식과 축복으로 그들을 더욱 가깝게 데려갈 수도,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축복이나 침례라는 거룩한 순간에서 주님의 집에서 받는 성스러운 성약까지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옷을 입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에 맞게 옷을 입는다

과거 어느때 보다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현대의 많은 사회에서, 복장에서 단정, 나아가 품위에 관한 표준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한때는 술집이나 부적절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던 형태의 옷들이 지금은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더 어린 세대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자녀들이 십대에 이르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정한 복장에 관해 가르치게 되면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세상의 표준에 맞서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시작함으로써 일생 동안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에 대해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주요 개념들이 이런 토대에 놓여져야 하는가? 다음의 것들이 복음



# 모든 것

진리에 따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장에 관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은 내게 구체적인 목적, 즉 그분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육신이라는 거룩한 은사를 주셨다.
- 하나님께서는 내가 단정하게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나의 신성한 기원과 목적을 나타내 준다.
-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도와 주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도록 도와 준다.

## 나를 정확하게 나타냄

한 어머니는 가정의 밤 공과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강조했다. 그녀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사진과 도박장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공과를 시작했다. 그 가족은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할 때 그 건물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토론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의 첨탑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경건과 경이로움을 일으키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성전의 외적 위엄과 장엄함이 건물의 성스러운 목적,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가족은 카지노의 외관이 어떻게 그 건물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토론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계속했다. “우리는 그 건물의 화려한 치장이 어떻게 무절제한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치장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건축 재료, 색상,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한 건물의 전체적인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가 단정한 복장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진을





치켜들었을 때, 자녀들은 복장이 사람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금방 연상해 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 가족은 단정하지 못한 복장이 그런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몸에 이목이 쏠리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단정한 복장은 그런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의 영성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우리는 옷을 입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거룩한 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손상시킬 수도 있는지에 관해 토론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 깨끗한 몸과 마음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의 청년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딸로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단정한 차림의 청년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7쪽)

## 가

르침만으로는 단정함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부모는 또한 단정하게 옷 입는 일에서 자녀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적절한 옷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런 옷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본다.





## 높이 일어서라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행동이 크게 말하니, 네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예언자들의 권고에 따르는 일에 높이 일어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어머니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모범과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청소년들은 갖 구운 신선한 빵 냄새를 맡듯 쉽게 위선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그들과 함께 단정하지 못함에 대항하여 높이 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관리 감독(“높이 일어서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6쪽)

우리의 옷을 입는 방법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라고 우리 가족에게 강력하게 부탁했습니다.”

### 가족 문화를 조성함

가르침만으로는 단정함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다음은 단정하게 옷을 입는 일에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 여러분 자신이 항상 옷을 적절하게 입음으로써 가족의 표준을 세운다. 여러분이 성전에 다녀왔다면, 가먼트를 완전하게 가리는 옷을 입는다. 성전에 다녀오지 않은

경우에도, 다녀온 후에 입는 것과 같이 적절한 옷을 입는다.

-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에 관해 자녀들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오락거리를 가정에서 없앤다. 모든 영상 매체, 즉 영화,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쇼, 음악 비디오 등은 복장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만일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선정적인 복장을 하고 있다면, 어린 자녀들은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복장 양식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 적절한 옷을 찾을 수 없다면, 가능한 경우 여러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자녀들의 옷을 만든다.
-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건전한 복장 양식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점에 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한다.

-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복장은 활동에 적절하면서도 단정하고 품위를 지킬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또는 과외 활동을 할 때에 단정하지 못한 유니폼이나 복장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적절한 복장을 찾기 위해 감독이나 교사, 또는 교장과 상의한다. 부적절한 복장을 입어야 하는 활동을 자녀가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건전하지 않게 보이거나, 자녀들이 단지 또래와 어울리게 돕기 위해, 아니면 또래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기준이 애매한” 옷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한 가지 길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다르게

보이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자녀들을 돕는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은 우리에게 가정 밖에 존재할 수 있는 문화와는 다른 단정한 문화를 만들 것을 장려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타일과 표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백성 가운데 있는 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사회에 적절한 표준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sup>1</sup>

### 무엇이 표준인가?

입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교회의 기본적인 지침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담겨 있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는 짧은 반바지와 치마, 몸에 꼭 끼는 옷, 배를 노출시키는 윗옷,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이 있습니다. 청녀는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슴이나 등이 깊이 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하게 노출된 옷은 피해야

### 명확한 메시지



“어머니로서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그들이 인기 있고 인정 받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게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우리의

표준이 곧 주님의 표준이 되도록 우리의 소망을 잘 다스릴 때 주님의 왕국에는 이중 표준이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관찰력이 좋은 청소년들은 이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치마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블라우스를 입으려고 가먼트를 접어 핀으로 폼았는지, 앞마당에서 일할 때 무엇을 입고(또는 무엇을 입지 않았는지),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 줄에서 있는지를 눈여겨 봅니다.”

새론 지 라슨, 전임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 많으니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8~79쪽)

합니다. 청남 또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의복이나 외모 또는 머리 모양을 피해야 합니다. ...

“... 무엇이 적합한지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sup>2</sup>

### 단정한 태도

물론 단정함은 옷의 치수 또는 스타일 이상의 것이다. 옷에 그려진 천박한 문양은 옷을 단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단정함에는 옷을 입는 사람의 동기와 태도가 모두 담기게 된다.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보여 주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입는 옷에 관계없이 단정하지 못하게 보인다. 건전한 외관과 단정한 태도는 다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그것을 존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럽히지 마십시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 몸차림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동반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복장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과 인정을 얻고자 몸을 사용하며, 또 정숙함은 단지 편리할 때에만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sup>3</sup>

### 거울 앞에서의 질문

자녀들은 학교나 다른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외모가 단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다만 몇 분간이라도 습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본다. 자녀들의 생각이 외모 자체보다는 건전하고 단정한 방법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향에 모아지게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내 복장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내 육신에 이끌리게 하는가, 아니면 내 믿음에 끌리게 하는가? 선정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건전하게 보이는가?
-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을 위해 입었는가?
- 내 복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분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내 신분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가?

### 참된 행복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그의 딸들이 너무도 세상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걱정이 되자 그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세상의 어리석은 유행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방법에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복장과 행동에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없앨 것을 요청했다. “옷에서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이생과 다가올 생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sup>4</sup>

자녀들이 우리 시대의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맞서도록 도울 때, 우리는 또한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발전”시키도록 돕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성전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으로 향하는 길에 머물 때, 우리는 그들이 생활에서 좀더 풍성하게 영을 느끼도록 돕게 될 것이다. ■

젠 핀보로우는 솔트레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스테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제4와드의 회원이다.

### 주

1. “On My Honor”, *Ensign*, 1979년 4월호, 3쪽에서 인용.
2. 소책자, 2001년, 16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15쪽.
4. Susa Young Gates, *History of the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1911), 8~10쪽에서 인용.



# 참된 아름다움

한 번의 평범한 만남을 통해 나는 내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로잘린 콜링스

**교** 회 잡지에 실려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스터 가운데 하나에는, 중앙에 한 송이의 데이지와 그 옆에 장미가 꽃혀 있는 아름다운 꽃병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외모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성도의 벗, 1987년, 4월호, 34쪽) 나는 종종 그 데이지 꽃과 같이, 나보다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나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점도 점차 깨달아 가고 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다음 수업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한 젊은 여자가 특히 내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검은 머리와 진한 피부, 두드러진 광대뼈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창백하고 주근깨 많은 내 얼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특히 빨간 내 머리와는 달랐다. 그녀는 내가 이제껏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몇 분 후에, 그 무리는 자리를 뜨기 위해 일어섰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젊은 여자가 멈추었다. 나는 다소 당황했다. 내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 챌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말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해 드리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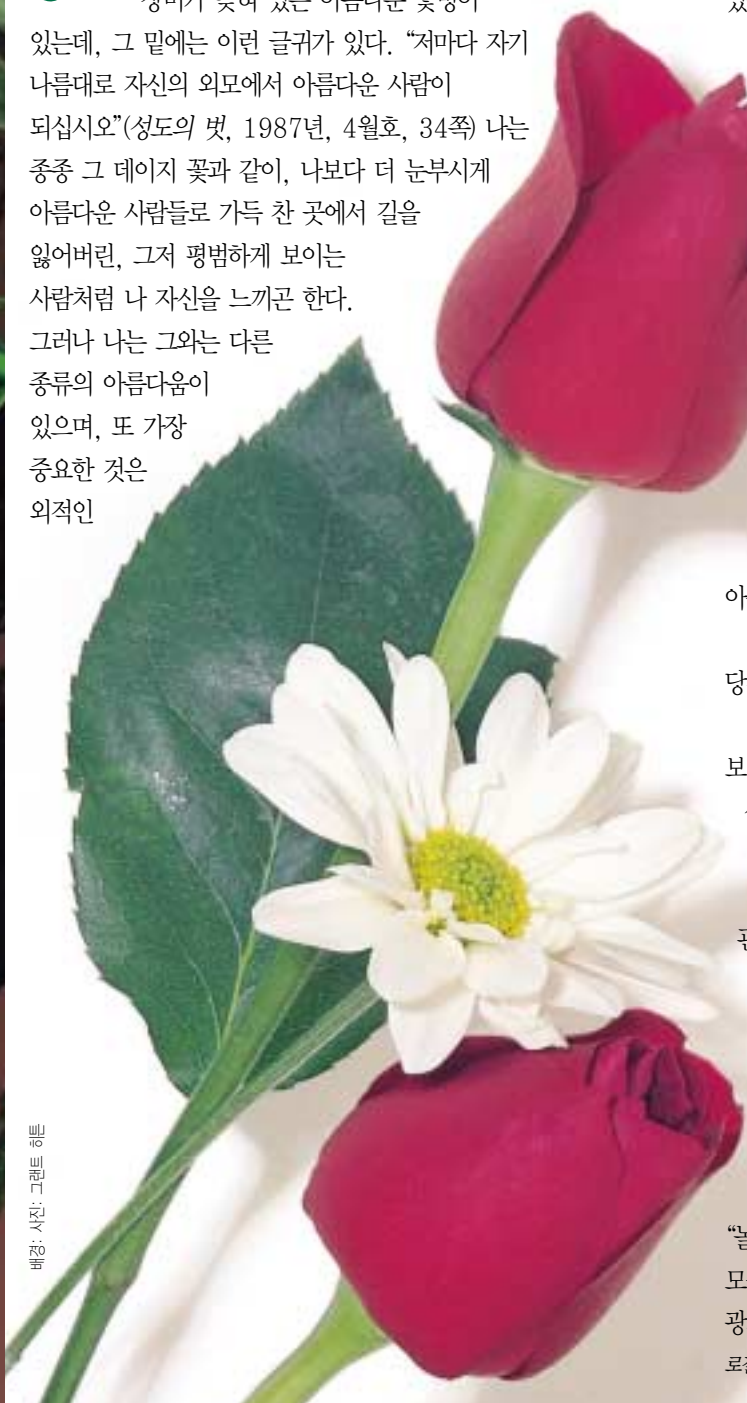
너무 놀라서 멍칫거린 후에, 나는 웃기 시작했다. “저도 당신에 관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계속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긴 우리 자신들을 서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아름다움에 관해 오직 하나의 표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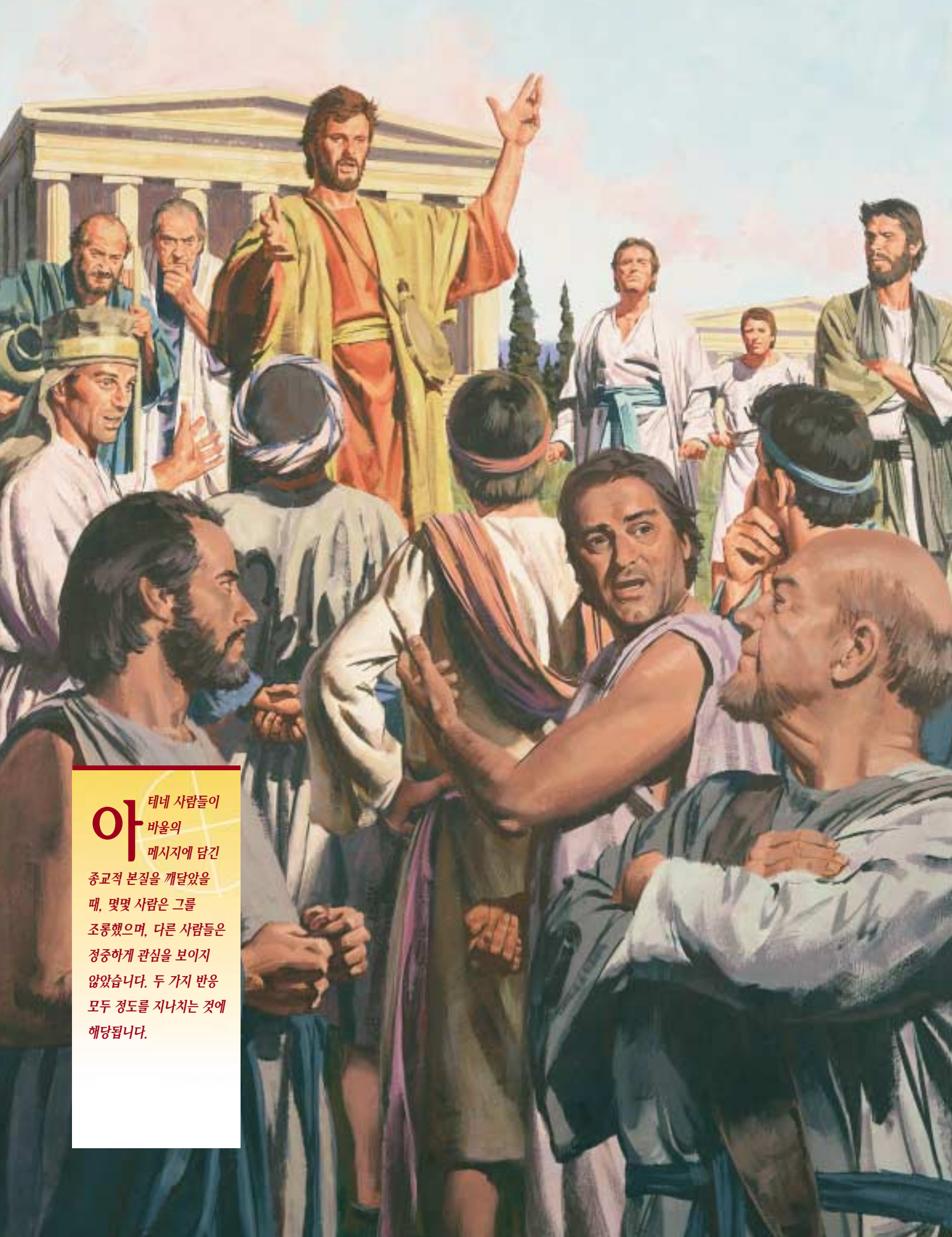
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그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엨마서 5:14)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적인 광채가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

로잘린 콜링스는 펜실베이니아 앨투나 스테이크, 스테이트 칼리지 와드의 회원이다.







**아** 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담긴

종교적 본질을 깨달았을  
때, 몇몇 사람은 그를  
조롱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정중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정도를 지나치는 것에  
해당됩니다.

# 정도를 지나쳐

지나친 열성으로 복음 취미(비핵심적인 교리에 치중하는 것)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철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교리보다는 규칙을 우선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퀸틴 엘 쿡 장로

찰십인 정원회

**우**리는 가장 최신의 이야기, 소문, 홍보물, “새로운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유포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다른 매체들은 구세주의 메시지 및 모범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희생, 봉사, 그리고 사랑이라는, 매일 조용히 일어나는 행위보다는 종종 과장된 영웅적 행위, 사회 부적응, 분쟁, 그리고 성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 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종종 참된 것을 짓밟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아테네를 방문한 사도 바울의 기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오랫동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도시의 철학적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 시대의 주류 철학을 형성하고 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최고선이 덕이라고 믿었으며, 에피쿠로스 학파는 최고의 선이 쾌락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야망과 죄를 ... 덮기 위한 외투”로 철학을 사용해 왔습니다. 많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말을 그들의 좌우명으로 삼는 쾌락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sup>1</sup>

바울은 뒤섞여 있는 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말스 동산)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아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제단을 지칭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이 메시지에 담긴 종교적 본질을 깨달았을 때, 몇몇 사람은 그를 조롱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보다 정중하게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사도행전 17:32)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초기 시절에 예언자 야곱이 묘사한 사람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라 유대인들은 교만한 백성들이었던지라, 간결한





## 정도를 지나칠 때, 우리는 하늘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신 그리스도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멸하고 예언자들을 죽이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저들이 이렇게 행함에 정도를 지나쳐 눈이 어두워진지라, 멸망당함이 마땅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로부터 그의 간결하심을 취하셨음이었으며, 저들이 원한 대로 알지 못할 것들을 저들에게 많이 내어 주셨음이라. 저들이 원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것이요, 저들은 넘어지리도다.”(야곱서 4:14)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일부는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간증을 유지하기보다는 “정도를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인간의 철학으로 대체하고, 복음에 대한 극단주의에 관여하고, 일상적인 헌신을 희생하여 영웅적 행위를 좇거나 규칙을 교리보다 우선시할 때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묘사한 신학적 어둠과 넘어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복음 진리를 인간의 철학으로 대체함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의 메시지의 간결함에 당황스러워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적으로 보다 어렵게 하거나 현재의 학문적인 흐름과 병립시키기 위해서 진리에다 복잡함, 심지어는 모호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배도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믿음을 기존의 문화와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역사가 윌 듀란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이교 신앙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접목시켰다. 변질된 그리스의 사상이 환생하게 되었다.”<sup>2</sup>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려 애썼습니다. 계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세밀히 분석하고 분량을 더하고, 의미를 변화시켜 아름다운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는 “유대인들은 ... 복음을 거부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지적인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sup>3</sup>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단순한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정도를 지나치는 일이 됩니다.

### 복음 극단주의

영적 미성숙, 그리고 때때로 배도의 또 다른 표적은 지나친

열성으로 어떤 복음 원리에 초점을 맞추거나 “복음 취미”를 추구할 때입니다. 어떤 덕목이라도 지나치게 되면 악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교리를 더하고자 바라왔습니다. 총관리 직원들에게서 승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혜의 말씀에 더하자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석을 채택하자고 선전하고 다녔던 경우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율법이나 다른 원리를 종교적 광신의 형태로 바꾸어 놓는다면, 이는 정도를 지나치는 것이 됩니다.

승인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총관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총관리 직원들이 오직 “젓”만을 가르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 해서 그들이 가르치고자 할 “밥”이 자신들의 메시지에 들어있다는 뜻을 던지시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관리 직원들에게 충고하고 싶어하며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모든 가르침에 비판적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 외의 일을 다소나마 선포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교리와 성약 10:68), 그리고 “이에 더하거나 모자라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교리와 성약 124:120)라는 중요한 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든지 우리가 어느 한 교리를 보다 중요시하여 이와 동등한 다른 중요한 교리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약화시키게 되거나 총관리 직원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입장을 취할 때 정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 영웅적 행위에 대치되는 매일의 헌신

과거에 유타 대학교 재단 이사회 이사장이었던 제임즈 에스 저딘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자신이 학생이었던 때 “한 가지 원대하고 영웅적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았으나, “헌신은 일생 일대의 단 한 번의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sup>4</sup>

어렸을 때 저도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증조부이신 데이비드 패튼 김볼은 마틴 손수레 부대원들이 스위트위터 강을 건너도록 도와 주셨던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찾고 있던 헌신적인 행동같이 들렸습니다. 훗날 제가 크로저 김볼 할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그 분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사람들에게 손수레 부대를 구조하라는 임무를 주면서 그들에게 손수레 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라는 지침을 주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조대가 보인 현신은 특별히 “예언자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의무 또는 한 원리에 대한 일관되고 충실한 현신은 대단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척자들을 구조하는 것을 돕는 일이 데이비드 패튼 김볼에게 영웅적이었던 만큼이나, 오늘날에는 부도덕한 영화를 보지 않거나 저속한 언어의 사용을 삼가함으로써 예언자를 따르는 일이 그에 못지 않게 영웅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선교부장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셨으며, 어떤 경우에는 영웅적인 노력을 수행하려 애쓰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는 것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의 강한 힘의 분출을 통해  
오, 사람은 영웅적 위치에 오를 수도 있네  
하늘에서 한 시간 동안이라도  
그는 가장 하얀 빛을 감당할 수 있네  
비록 매일의 삶의 무게가 더욱 고되더라도  
걱정과 피로를 보내는 시련에 웃음을 보내세  
투덜거리지도 말며 뒤떨어지지도 말고,  
위대함에 대한 시험의 길이란  
사람이 만나는 영원한 매일매일이라네<sup>5</sup>

일부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커다란 부름이 주어지지만 한다면 열성을 가지고 헌신해 보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치 있고 큰 부름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디모데후서 1:9)에 따라 우리를 활용하십니다. 우리의 현신이 조건적이거나 매일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 규칙을 교리보다 앞세움

구세주께서는 사람들이 규칙을 교리보다 앞세우는 것을

# 이 생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즉  
부활하신 세상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주요, 선생님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걱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쿱기 장로(1915~1985)는 정도를 지나치는 것에 관한 야곱의 가르침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종교의 간결하고 단순한 것을 제하고 자신의 많은 해석을 덧붙였다. 그들은 의례와 행위로 치장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의 행복하고 즐거운 면들을 취하여 그것을 의례와 행위로 채워 제한적이고, 생략되고, 지루한 방식으로 변질시켰다. 주님의 율법의 살아 있는 영은 그들의 손에서 유대 의식주의라는 죽은 문자가 되었다.”<sup>6</sup>

대체로 교리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며, 원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언급 없이 어떻게 하는가를 강조할 때마다, 정도를 지나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라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린도후서 3:6)고 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아론 신권 집사들이 따르는(흰 셔츠를 입고, 가능하다면 넥타이를 매고, 또 단정한 방법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일과 같은) 규칙이 주님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것(성약을 새롭게 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속죄를 기억하는 일)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성찬식의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예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sup>7</sup> 여러 면에서 우리는 규칙보다는 교리와 원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sup>8</sup>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 주님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리 및 원리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규칙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특히 정도를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규칙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에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 “정도”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심

정도를 지나칠 때, 우리는 하늘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신 그리스도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일에서 ‘정도를 지나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토대를 쌓고 안전하게 지닐 수 있는 반석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sup>9</sup>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소위 기독교 학자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분은 단지 훌륭한 교사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도를 지나치는 것의 결정적인 예입니다. 그런 일은 야곱의 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던 절정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생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즉 부활하신 세상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주요, 선생님이로, 아버지 앞에서의 변호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의 기초가 되실 때, 우리는 정도를 지나칠 때 초래되는 신학적 어둠을 피하고 또 그분이 주신 약속인 영화로운 축복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전당에 너를 위해 마련된 처소가 있노라.”(이노스서 1:27) ■

### 주

1. Frederic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1898), 386~387쪽.
2. *Caesar and Christ*(1944), 595;189 Neal A. Maxwell, *Lord, Increase Our Faith*(1994), 23쪽에서 인용.
3. *Lord, Increase Our Faith*, 47.
4. *On Becoming a Disciple Scholar: Lectures Presented at the Brigham Young University Honors Program Discipline and Discipleship Lecture Series*, ed. Henry B. Eyring(1995), 78쪽.
5. Edmund Vance Cooke, “The Eternal Everyday,” *Impertinent Poems*(1907), 21쪽.
6. *The Mortal Messiah*, 4 vols.(1979~1981), 1:238.
7. “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7~40쪽 참조.
8. *Millennial Star*, 1851년 11월 15일, 339쪽에서 존 테일러가 인용.
9.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1997), 72쪽.

##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킴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대관장단:**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서, 그 어떠한 곳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데 가정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되시는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대관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참조)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소중히 기르십시오. 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지혜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여러분이 받는 영감에 따라 행동하십시오.”(“신앙과 간증으로 찬 천”,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9쪽)

**모세서 5:11~12:**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되, 각자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기도가 단순한 암송처럼 보이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절실한 필요 사항을 위해 신앙으로 간구할 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며 성신이 간증으로 마음을 적셔 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르침도

많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 줄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를 사랑하셨으며, 그 분의 기도들은 응답되었다는 영의 확신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이 내리게 하셨으며,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습니다.”(“간증의 유산”,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63쪽)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되며, 가정이 허름한 초가집이든 궁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족을 강화시키는 일은 조카나 사촌, 손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일에는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나 청년 및 청년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도 포함됩니다. 그 일은 자주 우리의 간증을 전하고, 어린이들의 능력과 재능을 믿으며,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어려움도 나누고, 급한 모습을 보이고 꾸짖기보다는 께안고 귀담아 들으며, 신앙을 키웠던 우리의 경험을 말하며, 이야기와 가르침을 통해 경전을 생활 속에 살아 숨쉬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결점을 용서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서 주님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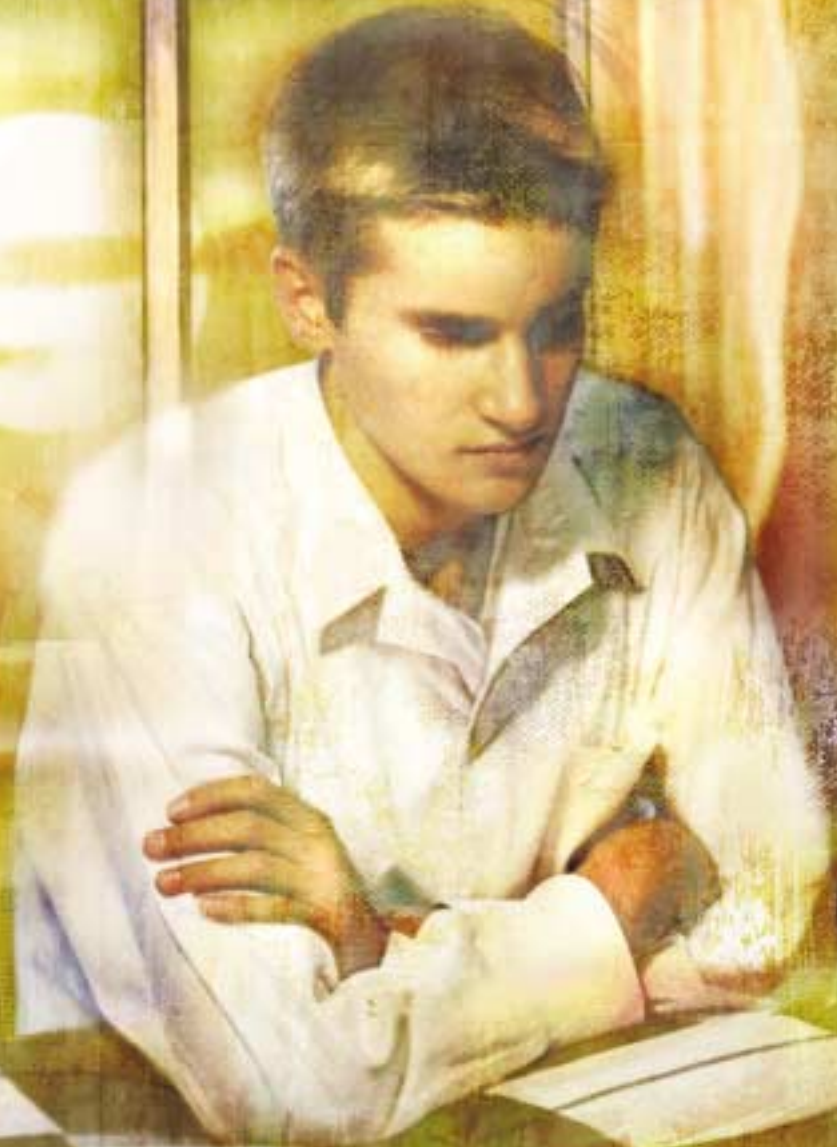




# 오늘 저는 ...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 엘든 태너는  
1962년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1963년부터  
대관장단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 부름을  
수행했다. 그는 이  
말씀에서 영생에 대한  
준비를 오늘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1898~1982)**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이라면,  
수많은 싸움을 치른 그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겠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작자 미상*

**이**시의 내용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영원한 운명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쟁취할 것인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영생을 맞이 위한 준비를 하여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이를 성취하려면 공부하고 익혀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우리의 지식을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신앙과 간증을 발전 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행복과 축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 및 세상적인 일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들고, 복음 토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생활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기부금을 좀 내고, 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봉사도 하고, 전반적으로 훌륭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생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무**

우리는 구세주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물어 본 사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태복음 19:16~17)

경전은 무엇이 계명이며, 영생, 즉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이 주님의 교회, 왕국에서 합당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받는 침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참다운 교회의 회원이 될 때에 우리는 회원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무를 배워 임명 받은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교리와 성약 107:99~100 참조)

**연습은 우리를 온전하게 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안겨 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과 운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나쁜 습관과 약점을 제거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골프 선수는 시합에 임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음악가, 미술가, 그리고 웅변가 등, 누구를 막론하고 숙련되기까지는 그만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현명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우리를 이 곳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더 잘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는 목표를 신중히 선정하고, 왜 그러한 목표를 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여하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만 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할 때 그러한 결단은 점점 더 쉬워져 습관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날을 만들

저는 복음을 배워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나 지혜의 말씀으로 번민하던 한 젊은 여성을 압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셨는데 앞으로는 담배 한 대를 피우거나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 한 명이 꼭 하루만 견디어 보고, 이것이 가능하면 또 하루만 더 견디어 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은 한번에 하루를 견디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는 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자신이 하루를 구세주의 가르침에 좇아 살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했다고 하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남아 있는 날들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결단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보람찬 한 해와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정한 목표를 새롭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바로 오늘부터

- 나는 진실한 기도로 하늘 아버지를 찾겠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다.
-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 나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 나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겠다.
-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권고를 경청하고 그 권고에 귀를 기울이겠다. 나는 성약과 계명을 지키겠다.
- 나는 말과 모범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다.
- 나는 교회의 표준에 따르겠다.
-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겠다.
- 나는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하겠다.
- 나는 내게 지명된 일을 잘 하기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하겠다.

-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겠다.
- 나는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겠다.
- 나는 충실해야 할 때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보면 신앙개조 제13조에 나타난 결의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자신이 하루를 구세주의 가르침에 좇아 살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내 가족에 관한 진리

## 스코트 빈

**학**교가 시작 되기 몇 주 전에, 친구인 그레이스와 론과 함께 현관 입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레이스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는가에 화제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그 친구에게 그다지 새로운 주제가 아니었다.

“아빠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창피하게 만드셔. 아빠는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며 나를 귀찮게 하셔”. 그 친구는 아버지의 단점과 아버지의 생활이 자기의 기대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에 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론은 자기 가족에 관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집에 많이 계시지 않는다고, 또 어머니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갔다. 그는 자신에게 귀가 시간이 있어야 하거나 아버지가 자신에게 크게 호통을 쳐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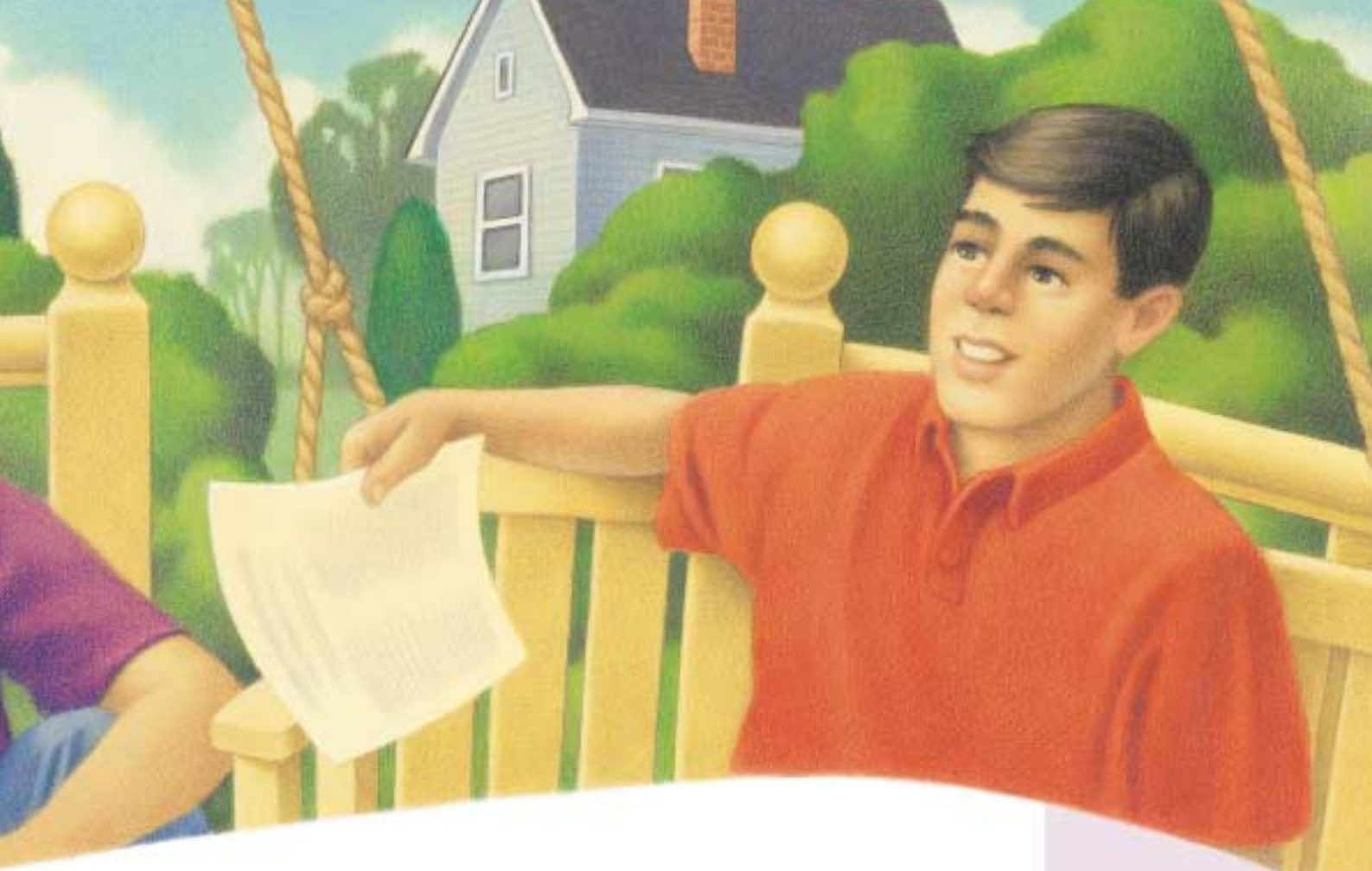
졸곧 현관 입구에 앉아서 듣기만 하면서 그들이 내게 우리 가족들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를 기다렸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난 후 다섯 번이나 이사를 다니는 동안 우리 남매는 정말로

탄탄한 우애를 다질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으며 서로를 붙잡아주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애를 어머니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 때 그레이스가 말했다. “네 가족은 어머니, 스코트?”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믿음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할 말을 고르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말을 꺼냈을 때, 영이 내 말을 인도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내 가족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가족에게 인내심을 보여 보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나는 좀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가족 선언문을 갖고 나왔다. 나는 우리의 가족 관계가 어떤 자질들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에 관해 주된 조침을 맞추고 있는 일곱 번째 단락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그것을 읽어 주고 나서 내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 글을 믿고 있어. 이런 관계를 우리 가족은 원하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어.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내가 가족과 함께 위축되지 않고 설 수 있다고 믿고 있지.”

두 친구 모두 상당히 오랫동안 묵묵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대화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동안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갖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복음에 관해 더 많이 설명하려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재빨리

경전을 집어들고 교리와 성약 4편을 펼쳤다. 여기에는 우리가 “은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선교 사업을 행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교리와 성약 4:2) 있다고 적혀 있었다.

물론, 친구들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는 점들이 있다. 그러나 종교와 믿음에 관해 말했다고 해서 참된 친구를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비록 그레이스와 론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과 우정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 그들에게 내 믿음을 설명하는 동안 모두들 좋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가족 또는 종교에 관해 믿고 있는 바를 즉시 바꾸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선교 사업에서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 내 경험도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

스코트 빈은 네브래스카 오마하 스테이크 엘크혼 워드의 회원이다.

**내** 친구가 “네 가족은 어머니, 스코트?”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내 가족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 청녀회에서

캐서린 루백 피터슨

**스**리아나 시르스 다 코스타는 브라질 준디아이 스테이크 콜로니아 지부의 회원으로서 18세가 되었을 때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서 지부에 있는 성인 자매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주님은 만사에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저를 잘 대해 준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줄리아나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리타 리베레이로 판돌피 자매는 줄리아나가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지부에서는 청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청녀회를 떠나서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기 시작할 때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줄리아나처럼 많은 청녀들은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것이 하나의 적응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청녀들이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청녀들은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린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스테이크 채플힐 제1와드의 레이첼 크래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런 변화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세 때 청녀회에 소속되면서 18세에 청녀를 떠날 준비도 된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에 계신 자매님들은 현명하고, 복음에 맞는 삶의 덕성들로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좀더 깊은’ 복음 토론을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준비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청녀들에게는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신들이 사랑 받고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친구를 갖고, 배우고, 영을 느끼며,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변화를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도 있다. 청녀와 상호부조회 회장단들 사이의 적절한



# 상호부조회로

자매들이 청년  
프로그램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갈 때 자신들이  
사랑 받고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 우정 증진, 그리고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을 보살피는 강한 지원 체계가 도움을 줄 수 있다.

###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

교회 지침서는 청년 회장단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협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청년들이 상호부조회로 옮기는 것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03, 212~213쪽 참조)

새로이 오는 청년들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매년 청년 야영 모임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 유타 노스 오렘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캐롤린 라스무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각 와드에서 개최하는 야영 모임의 야영지에 몇 시간 앞서 찾아갑니다. 각 청년과 접촉할 기회를 갖기 위해 그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담아 주는 등의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바지를 입고,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쓰지 않으며, 야영지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고 청년들이 이야기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를 친해질 수 있는 자매들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쿠아우틀라 스테이크 비베로스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에벨리아 드 호요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매년 10월에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독신 성인 대표와 동행하여 월계반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선언문, 우리 조직의 역사와 목적, 교육 중점 사항, 개인 강화, 가족 및 가정, 사랑(자애), 방문 교사,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함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스테이크 훈련 모임 동안에 청년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마가리타 우드하우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지도자를 훈련시키면서 청년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의 젊은 자매들을 좀더 충분히 참여시키도록 계획함으로써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미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청년 지도자들의 상호부조회 참석이 그 과도기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좋아했던 이런 지도자들의 낯익은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외에, 청년 지도자들이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표상입니다.”

와드나 지부, 그리고 스테이크나 지방부의 많은 지도자들은 청년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함께 어울리게 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요크 스테이크 해로게이드 와드의 다이애나 가드너 자매는 월계반 청년들에게 성전에 함께 가서 같은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저녁에 엔다우먼트를 받는 동안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했다고 말한다. “월계반 청년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성전 경내를 같이 거닐었습니다. 그 때 나는 대화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가드너 자매는 말한다.

한 청년은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참석이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플로리다 올랜드 사우스 스테이크 플레즌트 힐 와드의 비키 해킹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청년회에 있을 때, 우리 상호부조회에서 월계반 청년들에게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도 알맞은 공예반을 정규적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머니와 딸들을 위한 공과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잘 적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 주었으며 또 제가 열여덟 살이 되면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주었습니다.”

영국 빌링햄 스테이크 빌링햄 와드에서는 청년 지도자들이 일단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봉사 계획의 일환으로 성탄절 선물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청년 회장단 제2보좌인 앤 헬프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스스럼없는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나이 많은 자매들도 한때 청년였음을 깨닫는 데 그 모임이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은 지금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 봉사의 기회

상호부조회에 새로 온 청년들을 활동 계획, 공과, 그리고 봉사에 참여시키는 일은 그들이 상호부조회의 정신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 방문 교사를 즉시 지명하고 방문 교육 임무를 주는 것은 친구를 사귄 기회뿐 아니라 봉사할 기회도 제공해 준다. 또한 새로운 자매를 상호부조회의 한 위원회에 부르거나 다른 임무를 줄 수 있다.

어떤 와드나 지부에서는 자신감 있는 새로운 자매에게 공과를 가르치도록 부탁하기도 한다. 유타 바운티폴 센트럴 스테이크 바운티폴 힐즈 와드의 수잔 버닝햄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젊은 자매들이

갖고 있는 젊음의 안목으로 본 견해를 나누는 일이 우리 상호부조회에 종종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한 젊은 자매가 자신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던 경험을 나누었던 공과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공과에서는 두 청년과 그 어머니들이 각각 그들이 순수하고 유덕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들을 나누었습니다.”

봉사의 기회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목적 의식을 가져다준다. 새로운 자매들에게 자선 봉사나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다른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돕도록 권유할 수 있다.

아이다호 포카텔로 이스트 스테이크 프린스톤 와드의 테이전 스펜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기는 것이 저에겐 봉사로 인해



사진 © PHOTODISC

**사** 랑 받고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이외에도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청년들은 친구를  
갖고, 배우고, 영을  
느끼며,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랑 받는다는 느낌



“상호부조회에 들어 오는 청녀들에 대한 제 소망은 그들이 따뜻한 팔로 감싸여져 환영 받고,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끼며,

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귀는 여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각각의 청녀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봉사해 주는 여성을 찾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장소입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또 자신을 잊으라고 이런 새로운 자매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훌륭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상호부조회 생활을 대부분의 자매들이 연로하신 와드에서 시작했지만, 그 분들은 모두 저를 매우 환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에서 그들과 함께 봉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 와드에 계셨던 많은 미망인들이 그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의류를 분류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 자매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를 태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봉사 활동 후에 저에게 점심 식사도 사주셨습니다. 중고 웨딩드레스를 찾는 사람마다, 그 드레스를 따로 빼놓았다가 저에게 주시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자매님들과의 유대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사에 대한 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 청녀들과의 우정 증진

상호부조회에 새로운 자매들을 환영하는 일이 특별 행사가 될 수 있다. 일부 회장단은 꽃 한 송이, 또는 액자에 넣은 상호부조회 선언문을 각 청녀에게 주기도 한다. 어떤 회장단은 새로운 각 회원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한 와드의 회장은 “상호부조회의 씨앗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장을 만들어서 실제 씨앗이 든 봉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각 청녀에게 전해 주었다.

청녀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상호부조회의 자매애를 강화시켜 준다. 그들 곁에 앉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생활에 관해 아는 것이 새로운 자매들에게 중요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자매들이 청녀 고문들과의 일대일의 밀접한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호부조회장단도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조지아 로즈웰 스테이크 노스 포인트 와드의 테라 타우슬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애틀랜타에서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멀리 오기는 처음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그냥 집에 갈까 하고 생각하며 성찬식에 앉아

있었는데, 매우 훌륭해 보이는 한 자매가 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분은 성함을 알려 주시며, 자신이 상호부조회 회장이라고 소개하고는 상호부조회 모임이 있는 곳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와드 자매들에게 상호부조회에 들어오는 각 청녀들의 이름을 외우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녀는 새로 오는 모든 독신 자매들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들을 상호부조회의 각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자매들이 각 청녀를 이름으로 부르고 친구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상호부조회 회장은 월계반에 참석하여 각 청녀에게 카드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다음 와드에서 특별히 존경하는 다섯 자매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는 명단에 있는 자매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어, 월계반 청녀들이 그 자매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설명했다. 이에 답하여 그 자매들은 청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많은 지도자들은 일년 내내 와드에 참석하는 청녀들에게 우정 증진이 필요한 만큼, 여름 한 철 동안 집에 와 있는 청녀에게도 우정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특별한 관심은 이런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하지만 우정 증진은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다. 전임 본부 청녀 회장인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상호부조회에 들어오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친절함과 강한 영, 주님에 대한 사랑, 경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엠 이 클레이튼 자매는 여러 와드에서 상호부조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상호부조회에 좀더 쉽게 적응하기 위한 그녀의 제언은 어떤 것일까?

“참여하십시오!”라고 그녀는 말한다. “만일 청녀들이 관심이

있는 방향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역할을 맡는 것이 다른 여성들이 그들을 만나고 또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쉽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 리즈 스테이크, 리즈 제4와드의 페니 로우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동료 자매들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과 좋은 우정 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이의 가장 위대하신 지도자이신 구세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 다른 목자들도 도울 수 있음

비록 청년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청년들이 옮겨가는 과정을 돕는 최일선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목자들, 즉 부모, 전임 청년 지도자, 신권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친구, 와드나 지부의 가족들, 그리고 종교 교육원 교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들 인생에서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소외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감독은 상호부조회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독이 각 청년을 접견하면서 그녀의 생애에 미치는 상호부조회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청년가 상호부조회에 들어온 후에 갖는 감독과의 접견 또한 도움이 된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아이다호 제4스테이크, 아이다호 제56와드의 켈리 스머스웨이트 자매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학생 와드에서 다음 학년도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떠날 때 감독님이 고향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을 잘 관찰해 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여름 동안에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과 다른 활동에 참석하여 상호부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유희과 사탄이 구세주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신 자매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굳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이러한 청년들을 사랑하고, 뒷받침하고,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부여될 수 있다.

테라 타우슬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상호부조회라는 조직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상호부조회가 내 생의 다음 단계를 위해 저를 좀더 잘 준비시켜 주어 왔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현명한 여성들과 친구가 될 기회를 주었으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 간증이 성숙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 상호부조회는 마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네이들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런 청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청년 조직을 떠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교회에 가까이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18세가 된 이후에도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기를 간구합니다.” ■

캐서린 루백 피터슨은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스테이크 하버 힐즈 와드의 회원이다.



##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이러한

청년들을 사랑하고, 뒷받침하고,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부여될 수 있다.





# 예수님의 말씀

# 겸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9)



우리의 완벽한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겸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 에토스 엠 애모림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세주께서는 놀라운 영원한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지 몇 마디의 말씀 또는 간단한 행동을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한복음 6:12)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우리들에게 낭비를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 사업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잠시 쉬시기 위해 “빈 들에 가서서”(마태복음 14:13) 우리가 하는 일의 수고로부터 때때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매우 분명하고 아름답게 기록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의 숭고한 삶은 교만과 오만, 그리고 헛됨이 전혀 없는 생애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아버지께 의지하고 계심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 겸손에 관한 말씀

겸손은 주님이 진복 팔단에서 가르치신 주요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인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훗날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여지며 침례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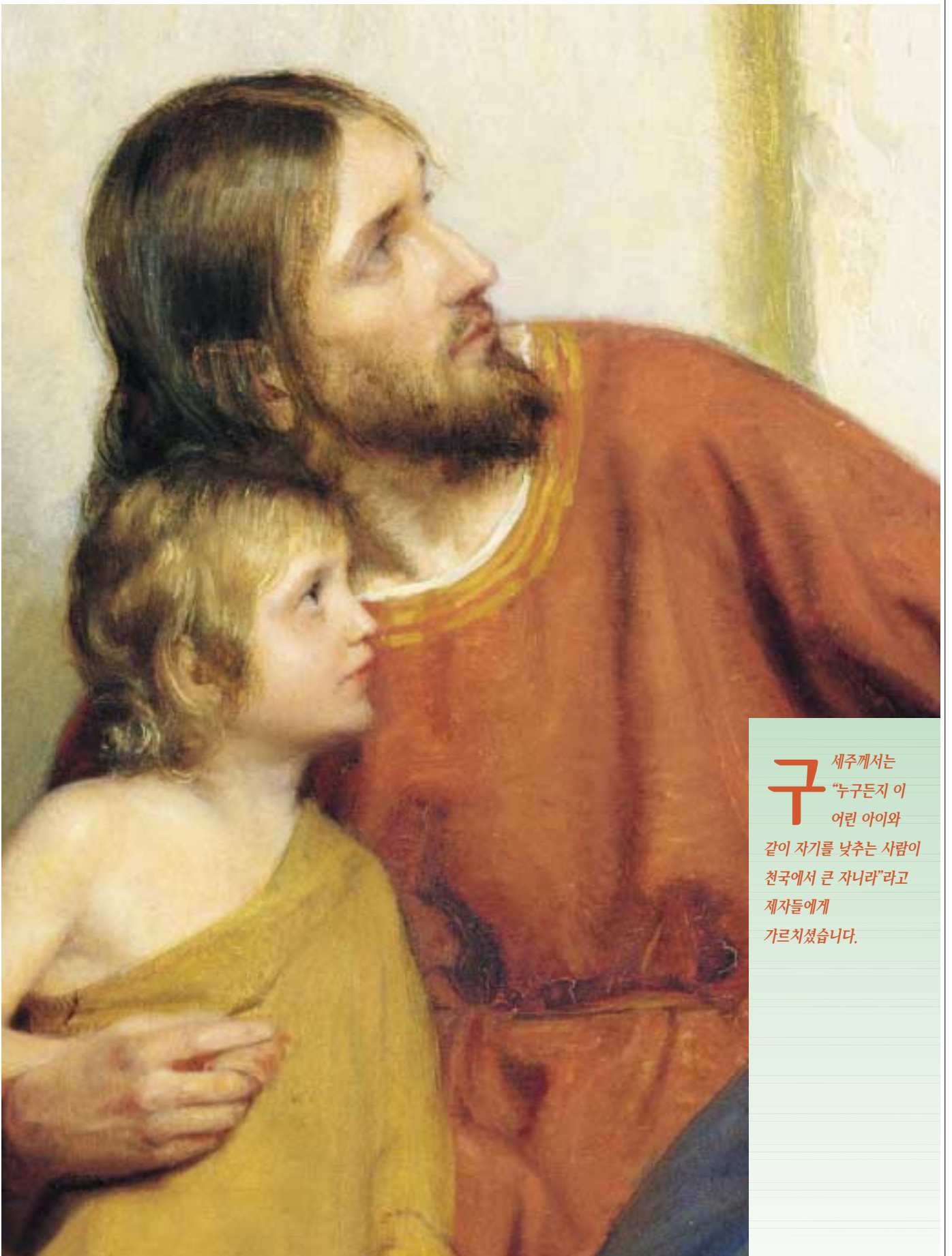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2~3, 5, 9; 또한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5:4~5, 7, 11참조)

그분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분께 오게 하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1, 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누가복음 9:48)

예수님은 그분이 지닌 권세와 지식의 근원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라는 점을 항상 언급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서서 이렇게 가르치 셧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요한복음 7:16, 18)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구 세주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요한복음 8:28~29, 50; 또한 12:49~50 참조)

이 위대하신 교사께서는 교만에 대해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14:7 참조) 그분은 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4:11; 또한 18:14 참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이 영광의 날에 그분의 좌우편에 앉는 특권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은 그러한 특권을 줄 권능을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불화를 지적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 함이니라”(마태복음 20:27~28; 또한 23:11~12; 누가복음 22:24~27 참조)

예수님은 체포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으로 걸어가며 함께 하던 마지막 시간에 성스러운 겸손에 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1, 5)

잠시 후에 위대한 중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내가 ...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 4, 22)

### 겸손에 관한 모범

탄생의 순간부터 구세주께서는 행동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요한복음 1:3)께서 친히 몸을 낮추어 내려오셔서 가장 미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동물이 거하는 장소에서 필멸의 생을 시작하였으며 동물의 먹이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을

맨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미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누가복음 2:7~20 참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명성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고자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만 품고 왔습니다. 병든 자와 고통 받는 자에게 종종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병고침의 기적 속에서 병 고치는 이의 역할보다는 병 고침을 받는 이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sup>1</sup>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마가복음 1:40)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마가복음 1: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같은 당부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기적들이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또 받아야 한다는 마음속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sup>2</sup>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 가운데 일부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한 대중성과 권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크게 유혹하거나 타락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칭송이 주는 들뜬 영향력을 무시하시고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요한복음 6:15 참조) 또 한번은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찬양의 말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겂옷과 나뭇가지를 그분 앞에 폈습니다.(마태복음 21:8~9 참조)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때 나귀를 타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겸손에 관한 메시아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스가랴 9:9 참조)

봉사는 겸손을 발전시킬 기회를 항상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사도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 본을 보였노라 ...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요한복음 13:12, 15~16).

마지막으로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대한 겸손의 행동 속에서 그분은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필멸의 생에서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겸손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27:54 참조) 그런 후에 그분은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완벽한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겸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에 온유함과 통회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심이 나타기를 바랍니다.

1995년 11월 2일, 한 해 동안 충실하게 준비한 후에 브라질 상파울루의 프랑카 스테이크의 안토니오와 로셀리 베로칼은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다섯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비극적이고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 베로칼 자매와 모든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같은 달 22일에, 안토니오 베로칼 형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봉되기 위해 혼자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와의 접점은 겸손에 관해 훌륭하고도 잊지 못할 교훈의 기회였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그가 느꼈던 위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곧 이어 집행될 성스러운 의식에 대해 고마워 했습니다. 안토니오 형제는 온유하고 마음을 낮춘 사람입니다.

또한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계신 연로한 형제 자매들과 젊은 선교사들이 보여 주는 겸손한 봉사입니다. 그들의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돈을 절약하고,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으로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매달 감독에게 내고 있는 겸손하고 충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고무됩니다.

신약전서의 제자들은 구세주의 비범한 삶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겸손의 모범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그분의 생애가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증거해 왔습니다.<sup>3</sup>

구유에서 나신 예수/영광 중에 오시네 ...  
피땀 흘려 번민한 주  
영화롭게 오시리  
한 때 배척당했으나  
이제 임금되심을  
세상 알게 되리라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그분은 겸손에 관한 가장 위대하신 모범이셨으며 또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

에토스 엠 애모림 장로는 2002년 10월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에서 해임되었다.

주

1. 마태복음 9:22 참조; 또한 15:28 참조; 마가복음 10:52; 누가복음 17:19 참조.
2. 마태복음 9:30; 마가복음 7:36; 8:26; 9:9; 누가복음 8:56 참조
3. “살아 계신 그리스도—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2~3쪽.
4. “구유에서 나신 예수”, 찬송가, 121장, 1, 3절.

예 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찬양의 말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  
가지를 그분 앞에  
펼쳤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겠다고 하셨으며, 이것은  
겸손에 관한 메시아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 오늘의 기적

니토츠카 실바 칼리스토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다음날의  
주일학교 공과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기적에 관한

내용이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미망인이었고,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동생들과 나는 어려서부터, 말털로  
수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우리는  
말털을 뽑아서 염료로 색칠을 하고 난 뒤,  
나비, 쥐, 코피후에스칠레의 나라꽃)와  
같은 모양으로 털을 엮었다. 매우  
세밀하게 작업해야 되는 우리 나라의  
특산품이었다. 겨울 내내 털을 엮어서,





여름에 우리의 작품들을 공예 박람회에서 팔곤 했다.

그 해에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칠레 남부에 있는 관광지인 테무코에 있는 공예 박람회가 과거에는 우리의 주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그 해에 우리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박람회 주최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전시 공간을 할당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수입의 손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걱정했다.

그러나 그 날 오후에 주일학교 공과를 공부하면서, 내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먼저 나는 몰몬서 9장 19절을 읽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이러한 약속은 내 영을 고양시켰다. 그 다음 21절을 읽으면서, 더 좋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얻을 것이요”

나는 내 가족에게 필요한 기적에 관해 생각해 보았으며, 우리의 사정을 탄원해 보기 위해 네 시간을 여행해서 테무코로 가야겠다고 작정했다.

**문** 화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박람회 사무실의 책임자는 공예 박람회에서 우리 가족이 전시 공간을 할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수입이 필요했고, 따라서 나는 계속해서 기적을 믿었다.

문화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박람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같은 요청을 하기 위해 그 곳으로 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했으나,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차례가 와서 책임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우리가 전시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게나마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 전시 공간은 여러 달에 걸친 겨울 동안에 우리 어머니를 위한 음식과도 마찬가지로 설명했으나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런 후 나는 별 생각 없이 내가 기적을 믿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는 그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금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머리엔 주일학교 공과에 나온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니라.” 내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그것도 지금.

박람회 사무실 밖에서 여섯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시각각 걱정이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내 칠레 전국 곳곳과 다른 나라에서 공예인들이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박람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목이 메어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했다. 갑자기 평안한 느낌이 나를 감쌌으며, 다시 한 번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의 태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전시 공간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나는 기적을

믿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박람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벌었으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스스로 배웠다. 내 신앙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나날이 커 가고 있다. ■

니토즈카 실바 칼리스토는 칠레 산티아고 인테펜덴시아 스테이크 캐리온 와드의 회원이다.

## 온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

파멜라 스테엔호르크

**다**섯 번째 아이인 양겔리케가 태어난 지 두 시간 후부터 숨을 쉴 때마다 헐떡거리더니 몸이 자주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졌다.

검사를 해보니 B형 연쇄 구균에 감염되었는데, 이 박테리아는 신생아에게는 심각한 질병이었다. 아기는 즉시 그런 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갓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갈 때 근심 걱정으로 인해 내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틀 뒤 퇴원을 한 후에 곧바로 양겔리케를 보러 갔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 의사와 많은 간호사들이 내 딸애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계들이 걸려 있어 그 작은 몸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 의사를 잡아 끌고는 물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죠?”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시점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이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게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권유했다.

남편이 집에 바래다 주는 동안 우리 사이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큰 걱정과 힘겨움에 있었다. 남편은 병원으로 돌아가 딸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날 밤 네 아이들을 침대에 누일 때, 일곱 살 된 큰 애가 울었다. 양겔리케를 손에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양겔리케가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으나 아이들은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 방으로 가서 내 일생에 가장 진지한 기도를 드렸다. 내가 양겔리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임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성전 결혼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 순간 평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결코 잊지 못할 느낌이었다.

그런 후에 양겔리케가 우리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양겔리케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그 아기에 대해 종종 “말을 걸곤” 했다. 그 아이는 우리가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할 때 우리와 함께 같이 있었다. 이제 그 아이는 병원에서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깨웠으며

아이들은 녹음 테이프를 사용하여 앞다투어 양겔리케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녹음했다. 우리는 친숙한 초등학교 노래를 불렀으며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보아 주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녹음기를 들고서 병원으로 가서 간호사들에게 그 테이프를 양겔리케의 유아용 침대 한 끝에 놓고 계속해서 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날 나중에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흥분해서 나를 맞이하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 주었다.

양겔리케는 인공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 기계에는 우리 아이가 혼자 힘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시간과 기계가 작동되었을 때의 기록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준 테이프를 틀었을 때, 그 아이는

거의 혼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테이프를 멈추었을 때는 인공 호흡기가 그녀의 호흡을 도와 주었다. 테이프를 틀었을 때, 놀랍게도 그 작은 몸이 반응을 보였다. 간호사들은 24시간 내내 테이프를 틀었다. 양겔리케는 천천히 회복되어 2주 후에는 집으로 올 수 있었다.

나는 기도와 가족의 사랑이 지닌 힘을 굳게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녀들은 돌아가면서 사경을 헤매는 갓난 아기 여동생에게 전할 메시지를 녹음했다. 우리는 친숙한 초등학교 노래를 불렀으며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 주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른다면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지니고 있다. ■

파멜라 스테엔호에크는 조지아 주 마리에타 동  
스테이크 앨라투나 와드의 회원이다.

##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제이슨 라카요

**때**는 1970년대였으며, 나의 아버지  
호레이쇼 라카요는 가난한 13세의  
소년이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화가 나서 그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마음이  
상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고  
작정했다.

아버지가 두 명의 선교사를 만나고  
오래지 않아 선교사들은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더 많이 배워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커다란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할아버지는 이미 가족에게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다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마리아 고모에게  
할아버지께 대신 허락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할아버지는 종종 고모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 아버지가 교회에  
관해 고모에게 말하고 침례 받고 싶다고  
설명했을 때, 고모는 도와 주겠다고 했다.

고모는 허락서를 할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확고하게 말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허락했고 아버지는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이 허락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한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  
아버지가 재고를 간청했을 때,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가서  
이모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일 년 후,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매우 아파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가기 전에, 그는 이모할머니에게 꿈에  
관해 말했다. 이모할머니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며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모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말씀하셨다. “정말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다치셨단다. 아버지께서 너를  
찾으신다는구나.” 아버지가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교회 활동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하셨다.

결국엔 아버지 가족의 많은 식구들과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오늘날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다, 그리고 네  
아들인 우리 모두 교회의 활동 회원이다.  
두 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한  
아들은 얼마 전에 귀환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주님이 자신의  
곁에 계시며,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호레이쇼  
라카요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를 강화시켜 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

제이슨 라카요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스테이크 카모림 와드의 회원이며, 현재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 새로운 선교 생활

로버트 에이 헤이그

**은** 퇴 후에 아내와 나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즐겁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와드와  
스테이크에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으며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그리고 미망인이  
된 어머니들을 방문했다. 만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고, 우리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곧 봉사할 결심을 했으나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보아야겠다고 느꼈다. 우리는  
착실히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일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다.

두 달이 지났으나 실천 목록이 오히려  
더 길어졌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문제  
없어. 노력을 더해서 일을 줄여 보는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으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목록에 있는 일들을  
끝내는 것보다 빠르게 우리의 목록이 더



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우리의 실천 목록을 다시 살펴본 직후에 나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1862~1933)가 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있었다. 한 글귀가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변명하기는 쉽다. 얼마든지 변명 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전혀 변명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437쪽)

상당히 감정이 고무된 나는 급히 주방으로 가서 이 말씀을 아내에게 전해 주었다. 그 글은 아내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다음에 취해야 할 일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실천 목록,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변명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찢어버리고서 선교사로 부름 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일단 이렇게 하니 모든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어느덧 싱가포르 선교부에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전보다 삶을 더욱 즐기게 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교회 지부들, 처음에는 스리랑카,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다.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우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또 교회에서 우리같이 연로한 선교사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곧 깨달았다.

귀환하기 이틀 전 밤에 말레이시아에서 봉사했던 두 지부의 회원들이 깜짝 송별 모임에 우리를 초대했다. 우리는 지역 회원들에 둘러싸여 교회 집회소 밖으로 걸어 나오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각 회원들이 집에서 만든 초롱을 들고서 중국어로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찬송가, 74장)을 우리에게 불러 주었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 경험을 나눌 때마다 눈물이 난다. 우리의 변명 목록, 즉 두려움을 극복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로버트 에이 헤이그는 워싱턴 셀라 스테이크 야키마 제2와드의 회원이다.

**우** 리 선교 사업이 끝날 무렵 지역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초롱을 들고서 중국어로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우리에게 불러 주었다.





# 알고 계십니까?

## 해롤드 빙엄 리

**제** 11대 대관장인 해롤드 빙엄 리는 1899년 3월 28일, 아이다호 주 클리프톤에서 태어났다. 리 가족의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으며, 해롤드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면서 성장했다. 그는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를 배웠다. 나중에는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댄스 악단에서 트럼본 연주를 하기도 했다. 미래의 예언자는 17세에 교사가 되었다. 18세에는 교실 4개로 된 학교의 교장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4년을 가르친 후에 해롤드 비 리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1856~1945)에게서 미국 서부 주들이 속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그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으며

나중에는 솔트레이크 행정관으로 봉사했다.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후에,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동안 그는 현재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사업을 수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42세에 해롤드 비 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1972년에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되었다. 그는 일 년 반 후에 7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리 대관장에 관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에 결코 약해지는 일이 없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xviii에서 인용)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네 명의 사도들, 마크 이 피터슨, 매튜 카울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둘러싸고 있다.



## 3월에 일어난 일

1830년 3월 26일: 최초의 물문경 5,000부가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미화 3,000달러에 이 비 그랜던에 의해 인쇄되었다.

1833년 3월 18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데릭 지 윌리엄스를 보좌로 성임하여 대관장단을 조직했다.

1839년 3월: 리버티 감옥에 있는

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의 고난에 관해 주님께 간구했다. 그가 드린 기도, 계시 및 예언의 일부가 교리와 성약 121, 122, 123편에 기록되어 있다.

1842년 3월 17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를 조직했다. 엠마 스미스가 초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1961년 3월 12일: 교회 최초의 비영어권 스테이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조직되었다.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공과, 모임, 그 밖의 모든 일에서 제 시간에 참석한다. 조금 일찍 오면 더욱 좋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조용히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 서두르면 영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상 제 시간에 참석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

위, 왼쪽부터: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물문경: 시드니 리그돈, 요셉 스미스, 프레데릭 지 윌리엄스의 초상; 그림: 리즈 레먼 스윈들, 리버티 감옥에 있는 요셉; 그림: 네이딘 버튼, 상호부조회의 조직; 모델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활용하기

## 토론 제언

- “순결해야 할 이유들”, 6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세상의 염려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이유들은 이러한 ... 염려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더 높은 이유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14쪽: 성전과 세속적인 건물의 사진을 가지고 외관과 목적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단정함에 대해 말한다. 그런 후 건축물과 의복 스타일 사이에 평행선을 그린다.
- “정도를 지나쳐”, 20쪽: 우리가 정도를 지나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에 대해 토론한다. 이 특별한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부탁한다.
- “에밀리 할머니의 닭”, 친구들 6쪽: 에밀리 할머니의 암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비록 우리가 불편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개념을 더 설명해 주기 위한 예를 말해 보라고 부탁한다.

##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가르침	2, 14, 48
가정 복음 교육	5
가정의 밤	2, 48
가족 관계	2, 14, 25, 30
개종	42, 친14
개혁자	친6
겸손	38
교회 역사	47
기도	25, 42, 친6, 친14
기적	42
단정함	14
목표	26
방문 교육	25
병고침	42
봉사	32, 친2, 친6
상호부조회	32
선교 사업	30, 42
성전 및 성전 사업	친16
속죄	친10
순결	6
순종	6, 20, 친2
신성한 본질(신의 성품)	14, 19, 친4
신앙	42
신약전서	38, 친10
영생	26
영성	25
예수 그리스도	20, 38, 친9, 친10
우정	13, 32
재능	친4
준비	25
지도력	32, 47, 48
진리	20
창조	친9
청녀	32
초등학교	친4

## 부부 선교사의 경험담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축복을 생각해 보도록 영감을 주는 부부 선교사의 경험담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주소:

Couple Missionaries,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cur-liahona-imag@ldschurch.org](mailto:cur-liahona-imag@ldschurch.org)로 전자 우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또는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스





the

# 친구들





#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은 숨겨져 있지 않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그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한다.

**매**우 유쾌한 뮤지컬 “왕과 나”에 나오는 대사 한 구절은 우리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삼 왕국의 왕이 죽어 가고 있는데, 영어 교사인 애나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애나는 슬프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은 결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참으로 노력했다.”<sup>1</sup>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길을 견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교통 표지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른쪽으로 계속 가시오”

조는 이 충고를 알았고 또 따랐습니다. 그는 새벽 여섯 시에 일어나서 다리가 불편한 어린이를 80킬로미터 떨어진 병원까지 데려다주도록 부탁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한 여인이 그 아이를 차 있는 곳까지 안고 나와 운전석 옆 자리에 앉히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조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둘러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이 마일쯤 간 후에 그 아이는 수줍은 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아니란다, 애야.” 조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저씨가 하나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침대 옆에서 저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럼 아저씨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나요?”

“가끔은 그런 것 같구나.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진 않았지.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생각이야.”

...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

1999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 주

1. Richard Rogers and Oscar Hammerstein II(Williamson Music, Inc., 1951).
2.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쪽

왼쪽 사진 촬영: 돈 부시스; 오른쪽 삽화: 랜들 픽스톤



**바른쪽으로  
계속 가시오**

정당

기록화

성실

이로움

덕



#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비키 에프 마쭈모리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6)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의 제목들을 말해 보세요. 왜 그 노래들을 선택했나요? 아마 그 노래들이 멜로디가 좋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노래는 나오미 더블류 랜돌 자매님과 밀드레드 티 페티트 자매님이 1957년에 열린 초등학교 대회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랜돌 자매님은 작사할 때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한밤중에 노래의 가사들이 마음에 떠올라 잠을 깰했습니다. 랜돌 자매님은 가사를 페티트 자매님께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페티트 자매님은 그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몇 년 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Teach me all that I must know)라는 가사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Teach me all that I must do)”라고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분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un with Favorites,” *Tambulilit*, June~July 1985, 4 참조)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 줄 부모님이 계신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사진과 사진틀

잡지의 5쪽을 잘라 낸다. 검정색 굵은 선을 따라 오려낸 사진틀을 두꺼운 도화지에 붙인다. 그 두꺼운 도화지를 바다

밑으로 접어 사진틀의 받침대를 만든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자르거나 다른 그림들을 그린 후 그 그림들을 사진틀에 풀로 붙여서 꾸민다. 사진틀의 중앙에 여러분의 사진을 붙이거나 그린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많은 재능을 축복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곳에 놓는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안들

1. 여러분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진 몇 장을 전시한다. 각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르고 특별한지 이야기해 준다. 각 어린이들의 성스러운 특성에 대해 간증한다. 칠판에 신앙개조 제7조를 써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어린이들이 그것을 다시 읽고 한 어린이는 단어를 하나나 두 개 지운다. 칠판에 한 단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한다. 운동이나 음악, 미술을 잘 한다거나 다정하거나 친절한 것과 같은 다양한 재능이나 성격의 특징에 대해 토론한다. 그 어린이들을 원으로 서게 한다.

한 어린이를 뽑아 “술래”가 되게 한다. “술래”가 된 어린이는 콩주머니나 다른 물건을 원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서 “운동” 과 같은 한 가지 재능을 큰 소리로 말한 후 열을 센다. 콩주머니를 받은 어린이는 열을 다 세기 전에 “축구”와 같은 운동의 재능 한 가지를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어린이는 “술래”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 2쪽)

2. 어린이들에게 모세, 다니엘, 다윗, 에스터, 바울, 니파이, 엘마와 같은 그들이 존경하는 경전상의 인물을 대도록 한다. 칠판에 그 이름들을 적는다.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마다 한 인물을 선택하게 하여 그 사람의 생애에 있었던 일을 연극으로 나타내게 한다.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1999), 172~173 참조), 각 그룹들이 연극을 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는지 맞춰 보게 한다. 각 연극이 끝날 때마다 그 경전 상의 인물이 보여 준 위대함과 고귀함의 특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자질들에 대해 말해 주는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아브라함서 3장 22~23절을 읽는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세에서 선택된 사람들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한다. 각 어린이들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이 경전에 나오는 고귀하고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갖도록 격려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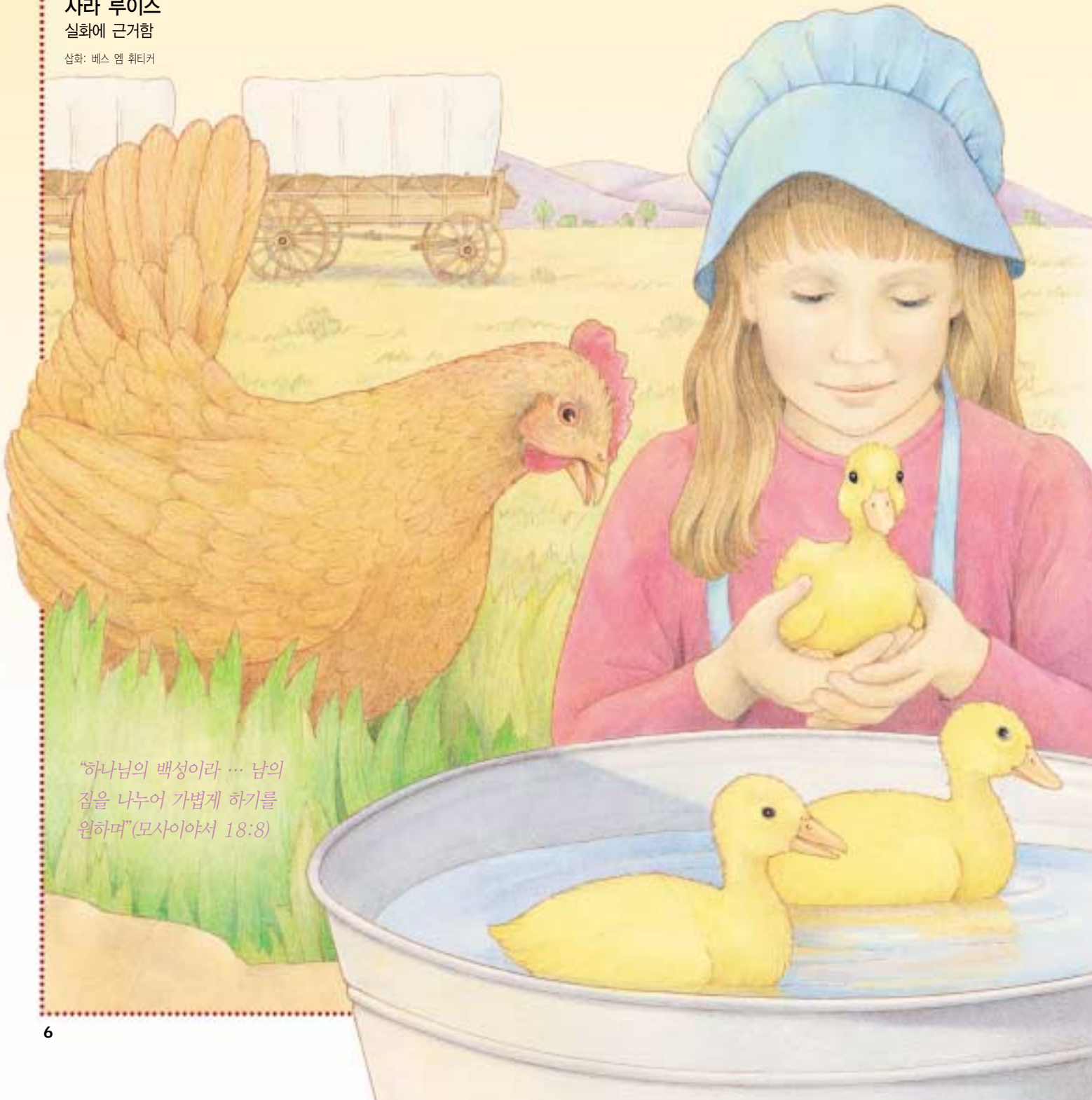




# 에밀리 할머니의 닭

사라 루이스  
실화에 근거함

삽화: 베스 엠 휘티커



“하나님의 백성이라 ...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모사이야서 18:8)



**레이첼** 이첼은 거실을 지나 계단을 뛰어올라 쏘살같이 자신의 침실로 달려갔다. 레이첼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베카는 공원에서 베카의 새로운 롤러 브레이드를 타 볼 참이었다.

레이첼이 침대 밑에서 자신의 롤러 브레이드를 꺼내고 있을 때,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다.

“히튼 자매님 댁에 다녀 올 테니, 몇 시간 동안 데이비드와 함께 있어 줘야겠구나.”

“하지만 지금 막 베카하고 공원에 갈 참이었어요!”

“네 계획을 망치게 되어 미안하다, 레이첼. 하지만 히튼 자매님이 수술을 하신 후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시단다. 그리고 엄마는 오늘 자매님을 돌봐 드리겠다고 약속했어. 30분 후면 데이비드가 낮잠에서 깰 테니 아빠가 오실 때까지 잠시 같이 놀고 있으렴.”

“하지만 전 데이비드하고 놀기 싫어요. 공원에 가고 싶다고요.”

“엄마도 알아.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동생을 좀 봐 줘야겠다. 공원은 내일 갈 수도 있잖니. 미안하다. 그렇지만 히튼 자매님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난 네 도움이 필요해.”

계단을 내려가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레이첼은 너무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왜 내가 데이비드를 돌봐야 하지? 단지 엄마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이 공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했다.

레이첼은 이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베카에게 전화를 했다. 레이첼이 전화를 끊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펠 이모였다.

“안녕하세요, 이모. 엄마는 안 계신데요.”

“괜찮아. 곧 가야 하거든. 엄마한테 빌려 간 재봉틀을 돌려 드리려고 왔단다. 이제 이모 것을 다 고쳐서 엄마 것이 필요 없거든. 그리고 이모가 제일

예뻐하는 조카랑 시간을 잠깐 보낼까 해서.”

레이첼은 마지못해 웃어 보이며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펠 이모는 레이첼의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다.

“무슨 일이 있니?”

“예에, 베카랑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저더러 집에서 데이비드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와드의 어떤 자매님을 도와 드려야 한다고요.”

“저런, 안 됐구나. 다른 날 같으면 네가 친구랑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집을 봐 줄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모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 일정을 바꿀 수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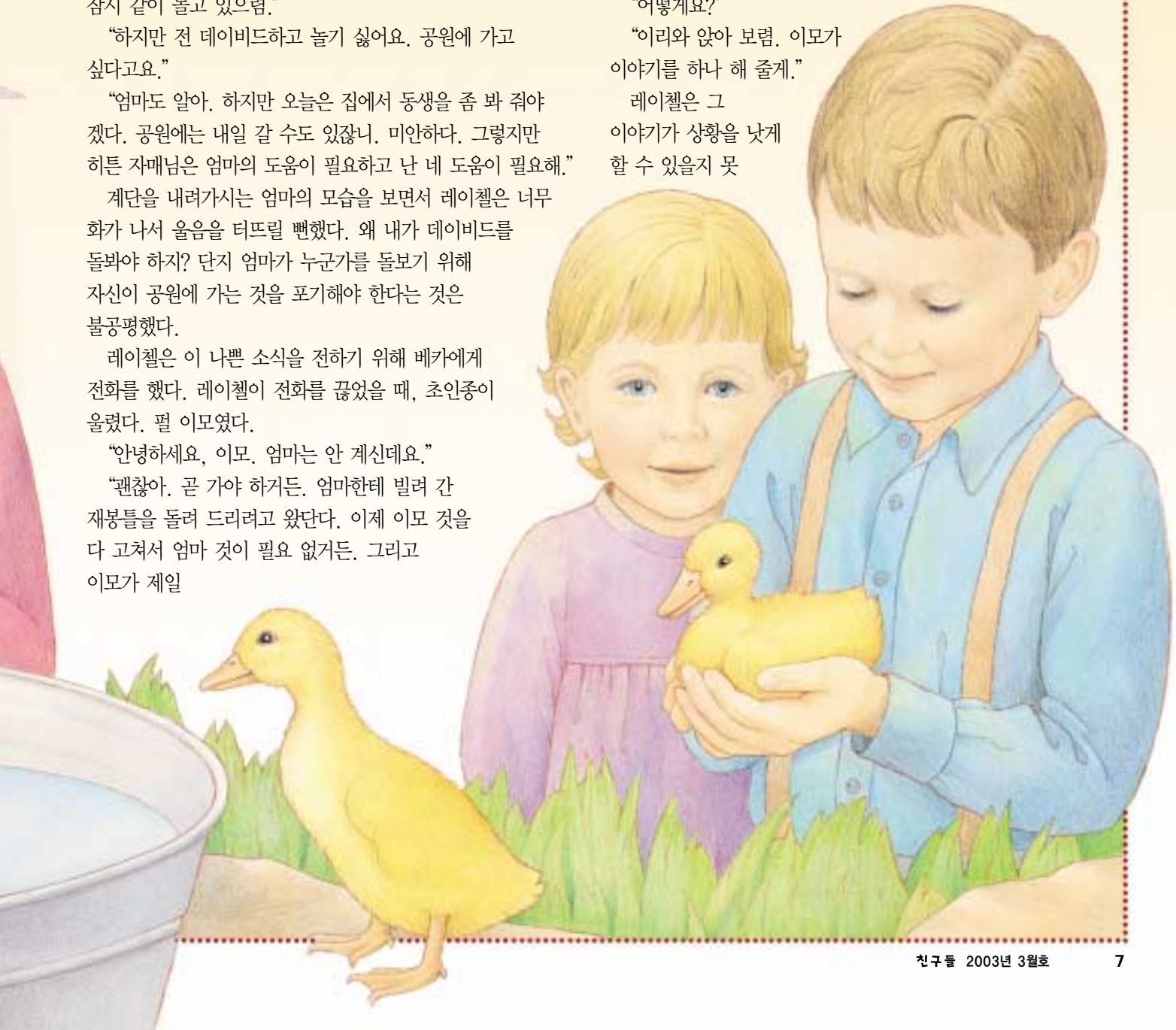
“괜찮을거예요. 오늘 공원에 정말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있잖니, 레이첼, 이모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요?”

“이리와 앉아 보렴. 이모가 이야기를 하나 해 줄게.”

레이첼은 그 이야기가 상황을 낫게 할 수 있을지 못



미더웠다. -이야기가 아기를 돌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펠 이모의 이야기는 대체로 늘 옳았다. 그래서 레이첼은 이모를 따라가 소파에 앉았다.

펠 이모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네 고조 할머니 에밀리 버크가 서부로 오기 위해 나무를 떠났을 때, 에밀리는 기르던 늙은 닭 한 마리를 데려오고 싶어하셨단다. 그 닭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 등지에 앉아서 오리 알을 품고 있었지. 에밀리는 그 닭을 남겨 두고 그냥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차에 상자도 등지를 만들어 주셨지. 알들은 곧 부화되었고, 매일 밤 마차 행렬이 멈출 때마다 할머니는 욕조에 물을 채워 오리들이 헤엄을 칠 수 있게 해 주었다. 여행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구경했지.”

있지, 레이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해야 할 일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포함된다. 물론경에는 “남의 짐을 나누어”(모사이사서 18:8)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구절까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기 바라신단다”

“에밀리가 닭을 돌보아 준 것이나 그 닭이 오리들을 돌보아 준 것처럼 말이죠?”

“꼭 주님께서 개척자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말이지. 그분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고 계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신단다. 그래서 우릴 돌보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히튼 자매님을 직접 돌보시지 않고 엄마가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히튼 자매님을 돌보시는 방법이야. 바로 네 엄마를 통해서 말이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기도응답해 주신단다.”

“그러니까 엄마는 히튼 자매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다. 너의 엄마는 히튼 자매님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계신 거야. 힘든 하루 끝에 지친

개척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 작은 새끼 오리들처럼 말이야.

“그렇지만 왜 제가 아기를 돌봐야만 하죠?”

“네 덕택에 엄마는 히튼 자매님을 돌보실 수 있는 거지. 만약 닭이 새끼 오리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오리들은 개척자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없었을 거야. 네 엄마도 네가 엄마가 안 계신 동안 동생을 잘 돌볼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히튼 자매님을 돌봐 주실 수 없었을 거구.”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저 역시 히튼 자매님을 돕고 있는 거네요?”

“정말 많이 돕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공원에 가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 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모도 기쁜 걸.”

펠 이모가 떠나자 데이비드가 깨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을 보러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레이첼은 펠 이모가 하신 말씀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다. 공원에 못 가서 여전히 조금 실망스럽지만 자신이 데이비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튼 자매님을 돌보시는 일을 돕는 것임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봉사를 할 때, 주님은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여’ 주실 것입니다.(모사이사서 18:10;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순종과 봉사를 하게 되면 성신의 은사와

영의 특별한 은사들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총성, 온유, 절제(갈라디아서 5:22~23 참조)라고 정의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생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7~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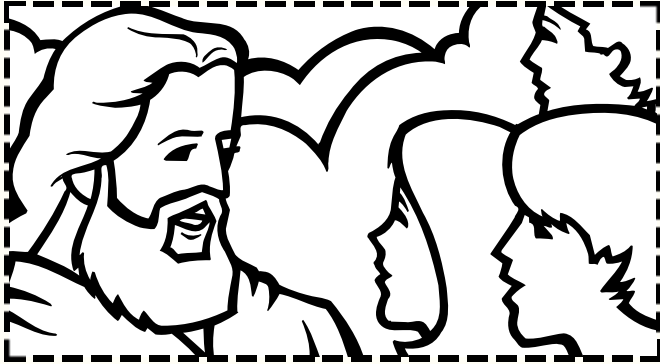




#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패트 그레이엄

유의 사항: 각 그림을 색칠한다. 그리고 난 후 이 실제의 이야기를 말한다.(아브라함서 3~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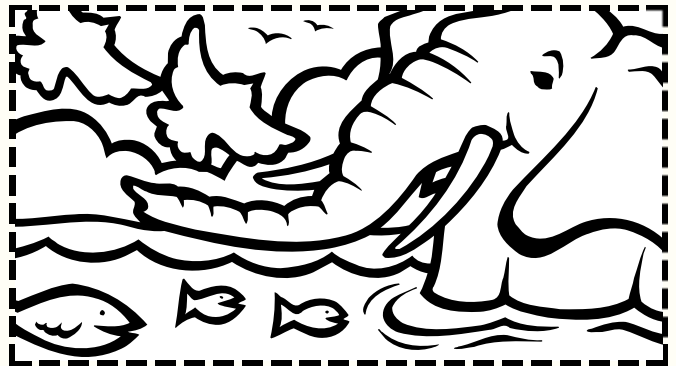
1.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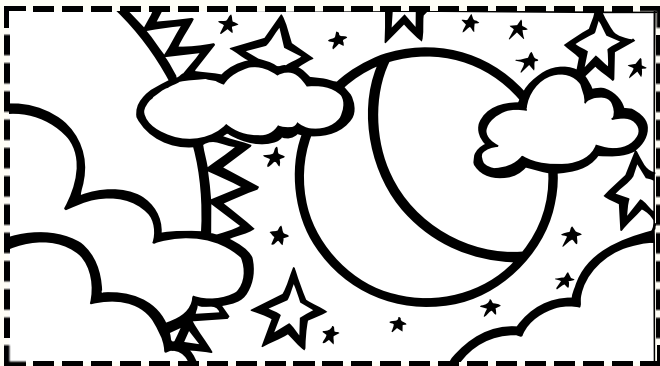
4. 예수님은 나무와 꽃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2.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라고 하셨습니다.



5. 그분은 물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어 땅 위에 두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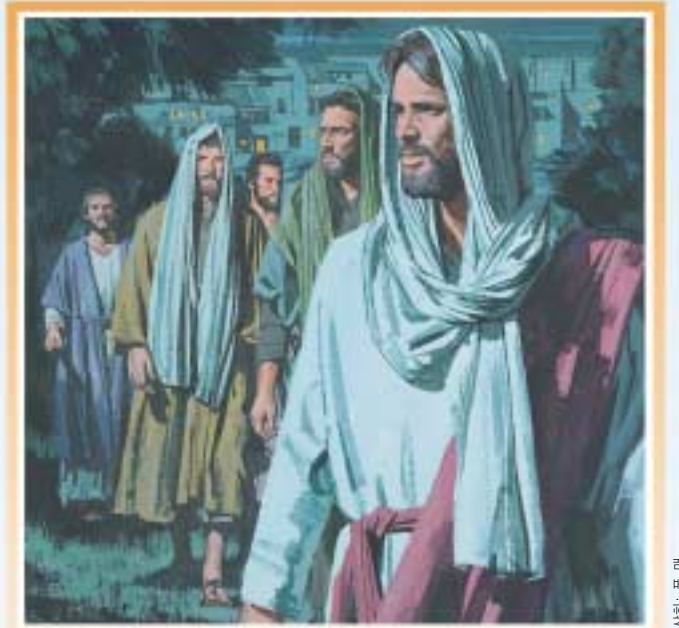


3. 그분은 빛을 만들기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6. 그런 후에 그분은 우리의 첫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땅 위에 두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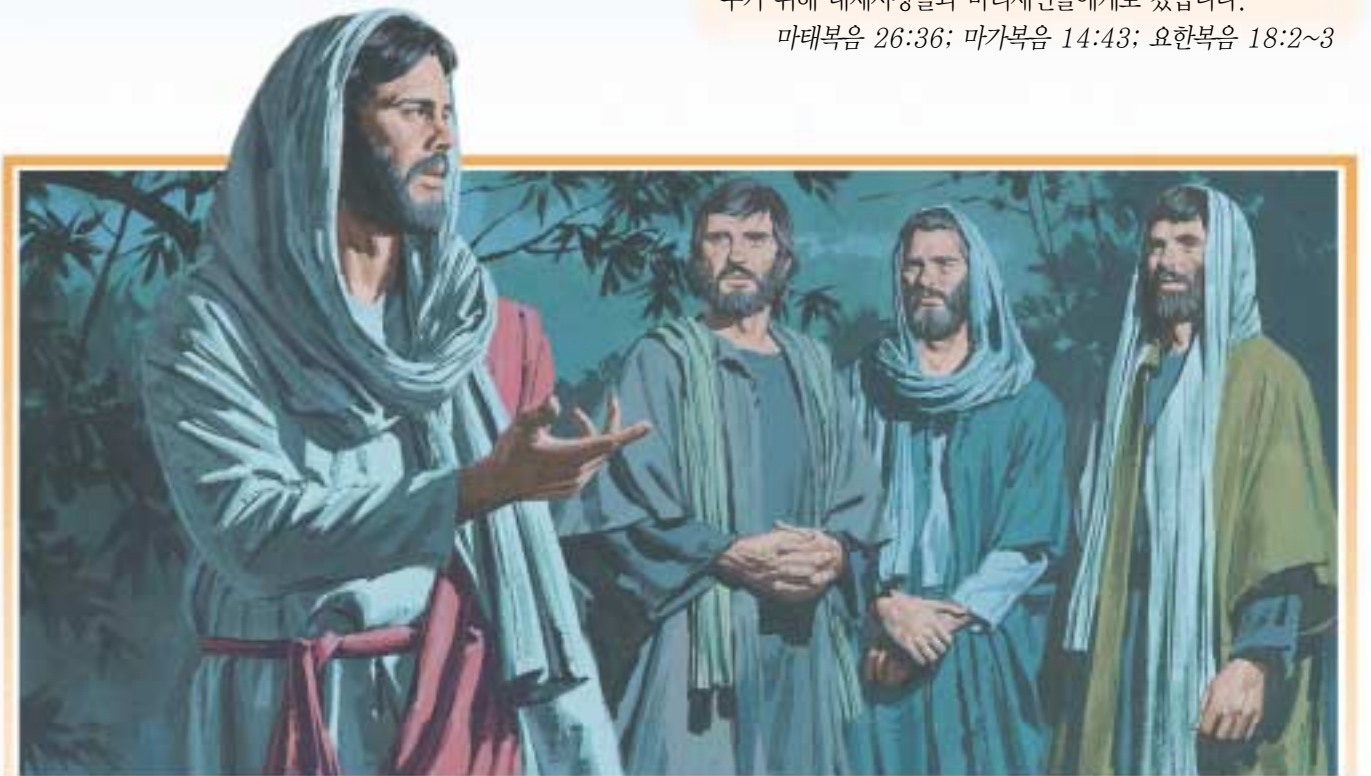
#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원  
본  
: 신  
약  
전  
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겻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해 주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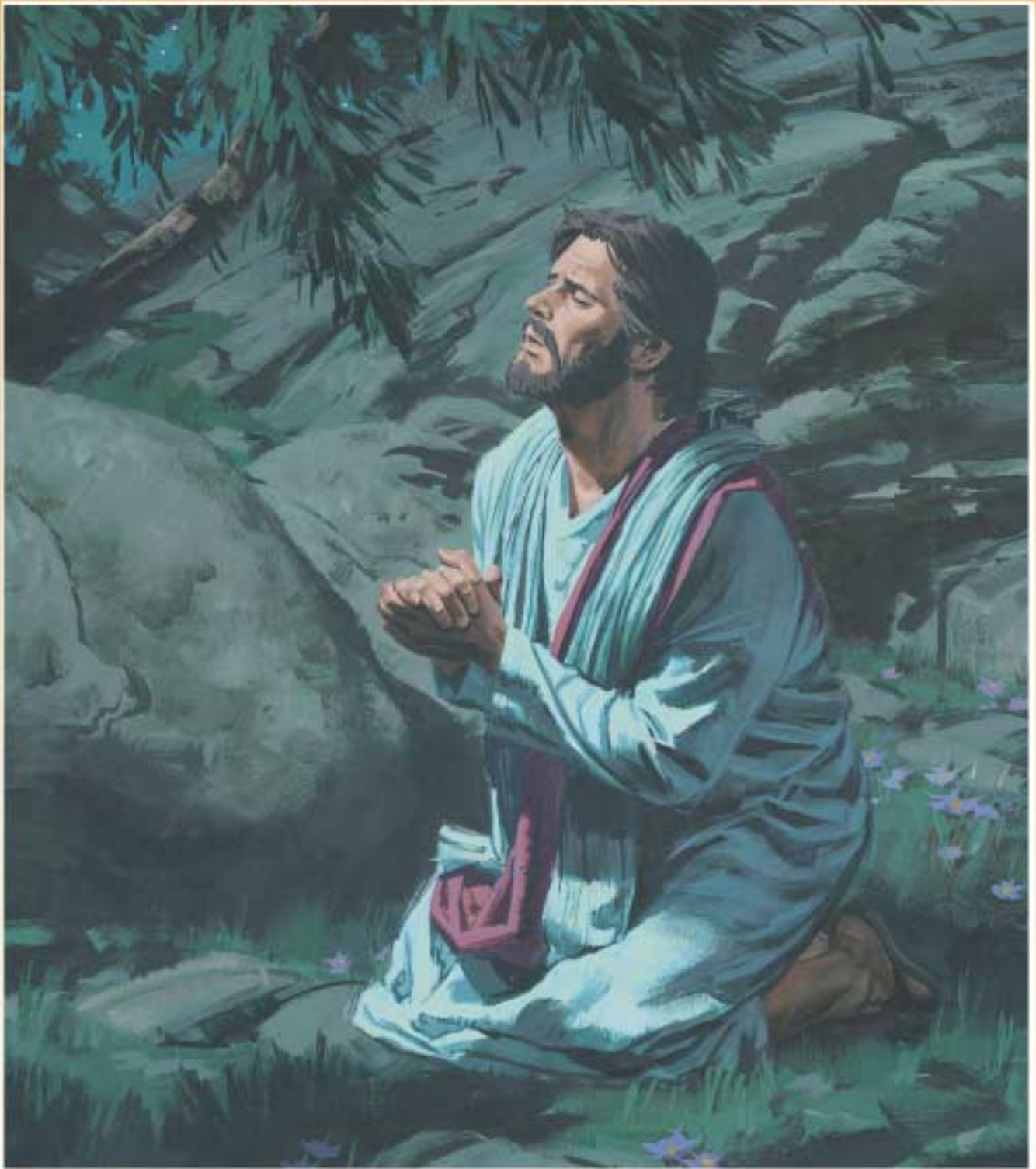
마태복음 26:36; 마가복음 14:43; 요한복음 18:2~3



구세주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그분과 함께 동산으로 가서 그분이 조금 더 나아가 기도드리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6~38; 마가복음 14: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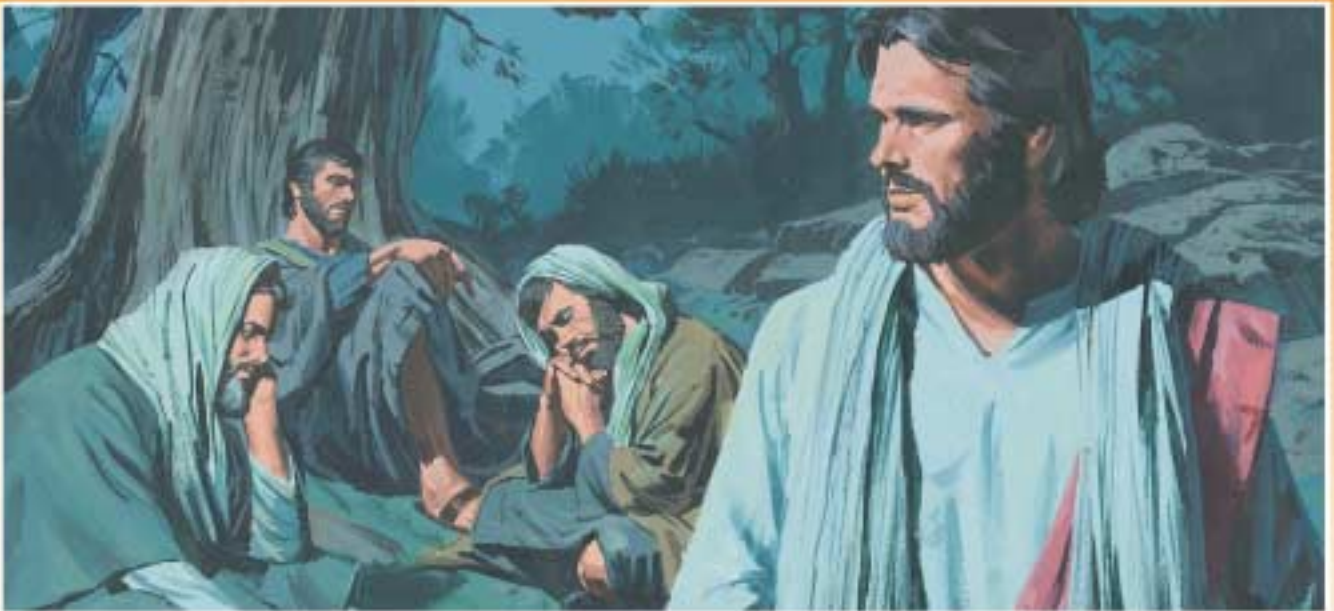
그분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9~44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40~41



그분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깨어 있고 싶었지만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또다시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 기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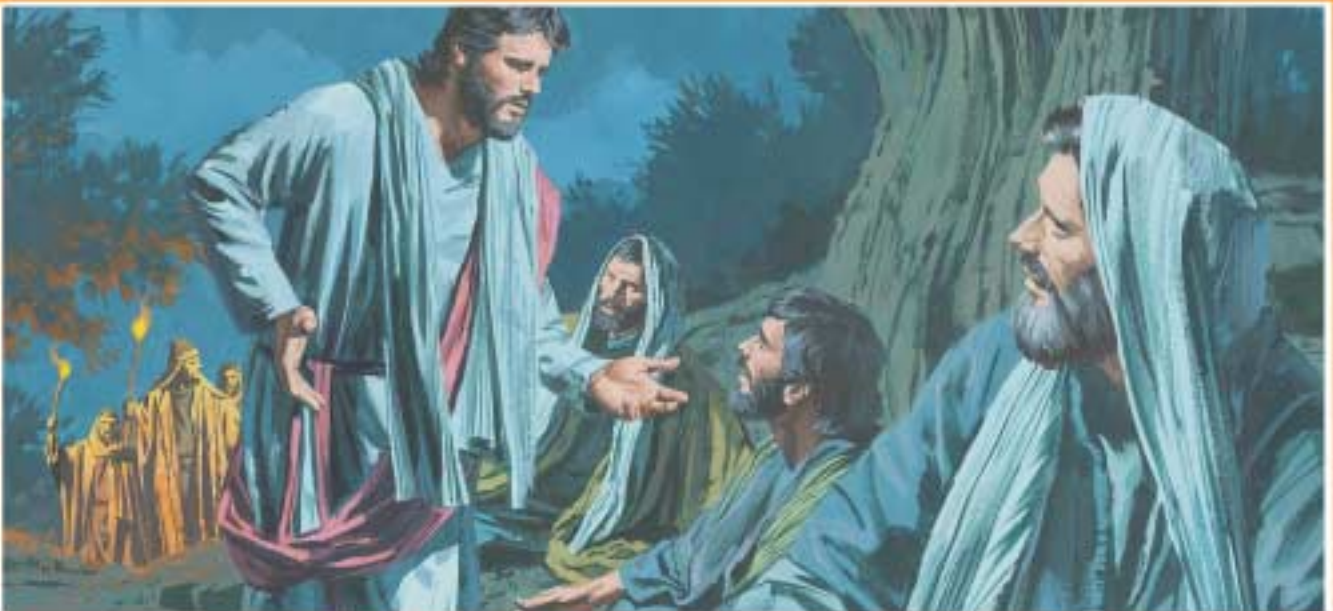
마태복음 26:42~44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분의 피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천사가 와서 그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42~44; 교리와 성약 19:16~18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깨우시고 그분이 배반을 당할 것이며, 그를 잡으러 오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45~46

# 기억하라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이, 내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



현재 남미 북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뷰: 크리스틴 레플리

**저**는 우루과이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가슴으로 그 다음엔 머리로 알았습니다. 니파이일서의 처음 몇 쪽을 읽었을 때 저는 이 책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강한 느낌을 받아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저에게 이것은 참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영, 즉 성신을 불러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몬경이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면,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입니다. 만약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면 이 교회는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 방법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 원리들 중 일부는 복음의 원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은 그것들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제가 기도하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첫 개종 경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그것을 생생하게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억할 때 그 경험들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엘마가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엘마서 37:13 참조) 리하이도 역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방법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니파이이서 1:1~5 참조) 저는 제가 개종되었던 방법과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 방법을 기억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제가 교회 회원으로서 지내 온

1. 두 살 정도 되었을 때 모습
2. 세 살 정도 되었을 때 모습
3. 동생 루이스(왼쪽)와 축구하는 모습(오른 쪽), 약 열 살 때





30년 내내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성전은 그러한 성약들의 상징입니다. 이 성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 줍니다.

침례 성약과 같은 성약을 지키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심들이 있습니다. 이 결심들에는 매일

몰몬경을 읽고, 무릎꿇고 기도하며, 매주 교회에 가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결심들을 지킬 때, 여러분은 성약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침례 성약과 같은 성약은 여러분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결심들을 지킨다면 그 일들은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도자가 교회에 관해 더 배우고자 결심할 때,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교회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더 작은 결심들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곤잘레스 장로와 그의 부인 줄마

구도자가 이 결심들을 지킬 때, 선교사들은 그들이 침례 성약을 맺고 간증을 얻게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몰몬경은 제 개종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몰몬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책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실제로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결심과 성약들을 지킬 때, 또한 살아 계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

# 성전 카드

2003년의 친구들 각 호에는 성전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이고 올려낸다. 성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카드를 수집한다.



사진 촬영: 로레니 포체토

##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1978년 10월 30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헌납함



## 일본 동경 성전

1980년 10월 27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

## 워싱턴 시애틀 성전

1980년 11월 17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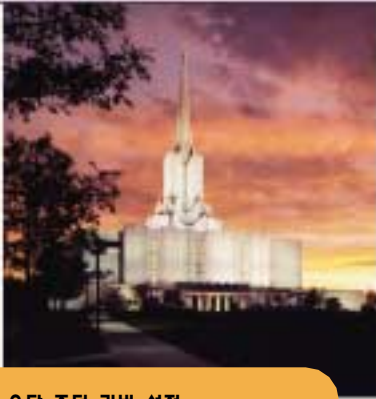


사진 촬영: 스티브 트레기글

## 유타 조던 리버 성전

1981년 11월 16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헌납함(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기도문 낭독함)



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

##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

1983년 6월 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마이클 맥공키

## 사모아 아피아 성전

1983년 8월 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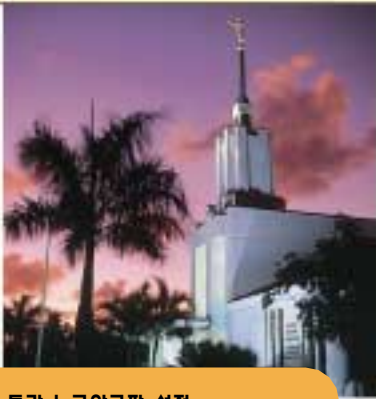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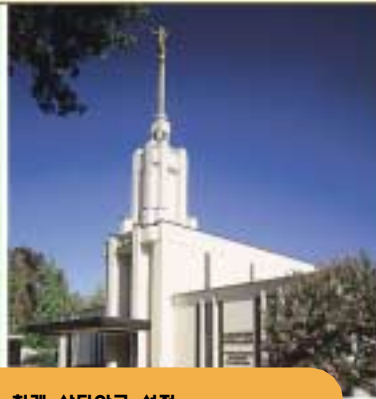


사진 촬영: 워리엄 에프 홀드먼

##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1983년 8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 칠레 산티아고 성전

1983년 9월 1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

##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1983년 12월 2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